

2022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존 카푸토의 약한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ohn D. Caputo's Weak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론신학전공

이민형

존 카푸토의 약한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전 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론 신 학 전 공

이 민 형

이민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김원동 김인도

부 심 이상현 김준

부 심 김재 김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12월

목 차

| | |
|----------------------------------|-----|
| 국문 초록 ----- | iii |
| 1. 서론 ----- | 1 |
| 1.1. 연구 동기와 목적 ----- | 1 |
| 1.2. 연구 방법과 구성 ----- | 4 |
| 2. 존 D. 카푸토의 신학적 접근 방법 ----- | 6 |
| 2.1.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점과 해석학 ----- | 6 |
| 2.2. 급진적 신학으로서 사건의 신학 ----- | 9 |
| 2.2.1. 급진적 해석학, 급진적 신학 ----- | 9 |
| 2.2.2. 이름과 사건 ----- | 11 |
| 2.2.3. 사건의 신학 ----- | 14 |
| 2.2.4. 부름과 응답 ----- | 17 |
| 2.3. 강한 신학에서 약한 신학으로 ----- | 18 |
| 2.4. 해체주의 ----- | 24 |
| 2.4.1. 해체 ----- | 24 |
| 2.4.2. 불가능자 ----- | 27 |
| 2.4.3. 사건 ----- | 29 |
| 2.4.4. 타자 ----- | 30 |
| 2.4.5. 메시아적인 것 ----- | 30 |
| 2.5. 소결론 ----- | 31 |

| | |
|------------------------------------|----|
| 3. 약한 신학(weak theology) ----- | 33 |
| 3.1. 하나님 이름에 관한 새로운 관점 ----- | 33 |
| 3.2. 하나님 이름의 무조건적인 요구 ----- | 35 |
| 3.3. 약속과 희망의 약한 힘 ----- | 39 |
| 3.4. 하나님 이름의 상징성 ----- | 41 |
| 3.5. 하나님의 유령성 ----- | 43 |
| 3.6. 하나님의 초월성 ----- | 45 |
| 3.7. 소결론 ----- | 47 |
| 4. 하나님 나라 ----- | 49 |
| 4.1.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제안 ----- | 50 |
| 4.2. 정의의 사건이 지배하는 힘없는 주권의 나라 ----- | 53 |
| 4.3. 역전과 전위의 신성한 무정부 ----- | 55 |
| 4.4. 소결론 ----- | 58 |
| 5. 결론 ----- | 60 |
| 참고 문헌 ----- | 64 |
| Abstract ----- | 68 |

존 카푸토의 약한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찰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근대성(modernity)의 합리주의에 맞게 또는 대항해서 신정통주의 신학, 신자유주의 신학 등이 등장하였으나 현대인들에게 삶과 종교 간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이에 포스트모던 신학에서는 탈자유주의자들(postliberals)과 해체주의자들(deconstructionists)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 급진적, 포스트모던적, 해체적 신학의 대표자인 존 D. 카푸토(John D. Caputo, 1940-)의 “약한 신학(weak theology)”은, 거대 담론을 불신하고 다양성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존 D. 카푸토의 본격적인 신학 저서인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2006)』과 일부 저작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적 접근 방법과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 나라를 고찰한 것이다.

그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 존재론적 신론에 근거한 전통 신학을 강한 신학으로 비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사건으로 해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낸다. 이는 급진적 해석학의 일환인 사건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이름이요, 현존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부름이요 약속의 이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함에 천착하여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있는 왕국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 국외자 등 사회적 아웃사이더가 주인이 되는 역전과 변위의 신성한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세상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새롭게 재편하게 하는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신학, “약한 신학”은 하나님은 누구/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신을 존재론적 실체가 아닌 부름으로,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유령으로 보는 카푸토의 기획은 기존의 기독교 전통을 새롭게 분석, 평가하고 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급진적 해석학, 사건의 신학, 해체, 이름, 사건, 강한 신학, 약한 신학, 하나님 나라, 신성한 무정부, 유령

1. 서론

1.1. 연구 동기와 목적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17세기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로 시작하는 철학과 지동설을 증명한 갈릴레이(Galileo Galilei)로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에서 비롯된 합리주의의 출현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근대성(modernity)은 계몽주의에서 유래한 문화적 정신이다. 서양 근대사회에서는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역사의 진보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 근대적 세계관에 관한 근본적 반성이 시작되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의 『도구적 이성비판』(1947)이나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1947)에서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성 담론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있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광기의 역사』(1961) 등에서 근대사회에서 이성은 그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고 특히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이에 배제되는 것을 광기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한다.

종교 측면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정통주의 신학¹⁾은 17세기를 거쳐 18세기의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성주의, 역사주의에 의해 무한한 변형을 구가하던 시기에 종교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현상계와 예지계를 구분하면서 과학을 사실의 영역으로, 종교를 가치 영역으로 제한하였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로저 올슨(Roger E. Olson)은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The Journey of Modern Theology)』(2013)에서 근대성의 특징을 합리주의(이성 능력 강조), 회의주의(제도와 전통에 대한 회의), 과학주의/자연주의(의식 영역, 사회 영역까지 과학법칙으로 설명), 세속주의(종교 없이 성공), 역사주의(역사의 사건 간의 인과성), 낙관

1)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주제들을 16세기 말, 17세기에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교리로 제시하려고 했던 시대를 개신교 정통주의라 한다. 대표적인 신학자는 요한네스 게르하르트(Johannes Gerhart)이다.

주의(필연적 진보), 인간중심주의(지식의 중심은 인간)로 제시하고 있다.²⁾

이러한 근대성의 산(酸)으로부터 신학을 보호하면서도, 급부상하는 여러 학문과 대화하여 근대적인 시각에서 신학의 여러 주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자유주의(문화개신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예수 연구, 성서비평학 등을 통해 개인체험과 다른 본연의 진리를 성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이들의 모습에서는 부르주아 이상주의와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런데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신학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 사상이 개인 중심적이면서 역사적 상대주의로 치우쳤다고 보았다. 칼 바르트는 신학의 출발점을 도덕의식, 종교체험, 역사의식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계시의 신학을 주장했다. 칼 바르트와 동시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루돌프 볼트만(Rudolf Karl Bultmann) 등의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한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 집대성되었던 개신교 정통주의의 기본 사상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낸시 머피(Nancy Murphy)는 자유주의 신학 대부분을 오히려 근대성의 범주에 넣는다. 이것은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의 주요 주제였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체로 보편적 인간 경험을 그리스도교 신학의 제1원천이자 규범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근대성(modernity)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쉴라이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의 하나님 인식이든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의 궁극적 관심이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교적 진리 주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의 종교성(종교적 선형)을 이용하려 했고 그 결과로 계시와 신앙을 손상시켰다.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근대성에 대한 헌신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격렬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포스트모던 철학과의 비판적 대화라는 과업에 참여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신학 방법과 기획을 형성했다. 그들은 탈자유주의자들(postliberals)과 해체주의자들(deconstructionists)이다.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한 방식으로, 그 초점이 “타자”에 대한

2)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의식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30-34.

현신과 모든 사상 체계 안에 있는 폭력적 경향들의 비판적 폭로에 있는데, 이는 신학을 이데올로기적 이상승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 다른 것,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방성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³⁾

신학적으로 해체주의적 사고를 한 신학자는 본회퍼(Dietrich Bonhöffer)이다. 그는, 근대의 ‘성인이 된 세상’에서는 종교와 문화에서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의 틈새의 신(God of the gaps)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비종교적’ 신앙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법의) 기계 장치로서의 신^{Deus ex machina}인 틈새의 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려는 시도로 그 관심을 개인의 내적 삶으로 돌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본회퍼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삶을 긍정하는 신, 세상에서 무력하고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약한 신에게 호소하였다.

급진적, 포스트모던적, 해체적 신학의 대표자는 존 D. 카푸토(John D. Caputo, 1940-)이다.⁴⁾ 카푸토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에 대한 해석자이다. 특히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사상에 대해 갖는 연관성과 관련하여 가장 앞선 미국의 해석자들 중 하나가 되었다.⁵⁾ 카푸토는 대륙 사상을 영어권에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적 발언 양식(vernacular)과 유럽적 감각 간의 중요하고도 독창적인 융합(fusion)을 도모하였다. 그의 독창성은 철학적 스타일이 아니라 철학적 관심에 있다. 그는 현대 사상을 종교로 전환(그 역도 해당)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비평적 연구를 교의학이나 변증론으로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다.⁶⁾

카푸토는 전통적인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신학을 과체중의 형이상학적 신학이라 하면서, 생활에 맞는 모양으로 손질하는 절감reduction(존재론적, 형이상학적, 해석학적 절감)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강한 신학(strong theology)의 역사를 통과해

3) 로저 올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874-875.

4) 로저 올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15.

5) 로저 올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0.

6)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Cross and Khôra: Decon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328.

가면서 절감된 신학은 더욱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약한 신학(weak theology)의 모습으로 출현하는데, 그것은 과중한 무게의 초자연적 믿음과 종교의 강력한 제도적 관심을 버린, 세계-내-존재의 필요에 맞게 줄어든 모습이라고 그는 보았다.⁷⁾

카푸토는 전통적인 신학을 강한 신학이라고 하면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신학적 해석학의 일환으로 보고, 급진적인 포스트모던 해석학을 전개한다. 그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계시를 하늘의 간섭이나 초자연적인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의 시적인 개시(disclosure)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계시는, 신이 신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의 이름으로 대신 통치했다라면 삶이 어떻게 보이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학이다.⁸⁾

카푸토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비판, 계승하면서 포스트모던 환경에서 신학적 답을 구해간다. 카푸토는 존재론적으로 강한 하나님보다는 사건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약함의 하나님(weakness of God)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신학을 전개한다. 이러한 전개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나라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거대 담론을 불신하고 차이, 다양성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카푸토의 신학적 기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카푸토의 본격적인 신학 저서인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2006)』을 중심으로 그 해체적 신학 방법론과 하나님 이해를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과 구성

연구자는 카푸토의 주저인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적 기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의 신학적 방법론인 급진적 해석학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해석학과 관련한 저서와 카푸토 자신의 학술 발표 논문도 참조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존 D. 카푸토의 신학적 접근 방법으로 급진적 해석학 그리고 급진적 해석학의 일환인 사건의 신학을 개관하였다. 사건 신학의 기본 방향은 전통적

7) 존 D. 카푸토, 『포스트모던 해석학』, 이윤일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20), 293.

8) 존 D. 카푸토, 『포스트모던 해석학』, 294.

신학의 강한 신학에 대한 거리두기와 약한 신학에 대한 제안임을 확인하였다. 이름과 사건에 대한 탁월한 견해로부터 사건의 신학은 출발한다. 이는 해체주의에 근간한 급진적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체주의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카푸토 신학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약함을 이름과 사건의 관계 속에 밝히고자 하였다. 카푸토는 하나님을 존재나 존재 너머의 초존재로 보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고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십자가 처형 이미지로부터 하나님의 무기력, 약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약한 힘이지만 부름으로서 용서, 선물, 환대와 같은 무조건적 요구이며, 이는 인간에게는 강한 힘으로 드러난다. 카푸토는 전통적인 신학의 하나님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약함, 유령성, 초월성을 제시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 본다.

제4장에서는 카푸토의 하나님 나라 기획을 다룬다. 하나님 나라는 실체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무정부(sacred anarchy) 비전이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정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성한 무정부, 주권없는 주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검토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 해체인지 보게 된다.

제5장에서는 카푸토의 신학적 접근방법과 약한 신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 그 한계점을 논하였다.

2. 존 D. 카푸토의 신학적 접근 방법

2.1.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점과 해석학

근대 사회에서 현상과 실재, 필연과 우연 등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 속에서 전체를 설명하는 보편(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보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지구적 다문화적 첨단 기술의 세상에서 보편성을 가진 진리를 다루기는 어렵게 되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자신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를 떠나 본 적이 없으나, 순수 이성이라는 보편적 표준을 강조하는 18C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어디든 쉽게 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집에서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장소를 가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수에 노출되어 있고, 다수도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다. 세상은 매우 다양하고 다형의(pluriform) 장소이다. 이로 인해 단색의 순수 문화라기 보다는 열린 결말의 무지개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철학자들에게는 이러한 현대의 생활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모든 다원론으로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현기증이 난다. 이러한 현기증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글로벌화되고 다문화적, 첨단기술의 세상이다. 보편(형이상학적 실체)이 근대적 모티프(motif, 주제, 테마)라면, 차이(difference)는 포스트모던 모티프이다. 모더니스트는 전체(the whole)를 중앙의 힘에 의해 통합된 체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 때 중앙의 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자연일 것이다). 이곳에는 모든 시계와 가치는 정시에 달릴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모든 것이 옆으로 걸려있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통제하고, 그 통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⁹⁾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부터 참을 얻을 수 있다는 토대주의(foundationalism), 과학 혁명으로 꽃을 피우게 된 계몽주의 이래로 근대 사회에서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보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에 대해 불신하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데 회의적이다.

9)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Great Britain: Penguin Books, 2016), 3-4.

포스트모던 사상을 신조체(a body of doctrine)가 아니라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길(way)이다. 그것은 모더니티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는[지속하는] 굴절[내곡] 혹은 교대[교번](alternation)이다. 모더니티는 과학뿐만 아니라 윤리에 있어서도 진정한 규칙(rule)과 엄밀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티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충고[권고]한다. 모더니티는 모든 사안(things)이 이성과 감정처럼 엄밀하게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나누어진다고 여긴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이러한 경계에는 구멍이 송송 나 있고 한쪽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모더니티는 인류역사와 같이 모든 현상을 망라하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찾고 있으나, 포스트모더니티는 장-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말한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을 말한다.¹⁰⁾ 이것은, 마치 인간 행동(성, 권력, 하나님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크고 포괄적인 설명들로(사태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¹¹⁾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단지 어떤 것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진리라 불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우리가 누구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수의 다른 진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이 지적했듯이, 진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보편성은 다양성이다. 우리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¹²⁾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에게 진입 각도(an angle of entry), 접근, 관점, 해석을 요구한다. 본래 해석학이라는 말은,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야 할 신학적인 작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해석학이 뜻하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이론이다. 모든 진리는 해석의 작용(function), 사건(event)이며 해석 요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상속된 추정(inherited presuppositions)을 갖는 일이다.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그것은 차이를 분별력 있게 다루는 해석학의 일이다.¹³⁾

진리를 객관적 진리와 주체적 진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진리에서는 개인이 말하는 바의 객관적 내용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개인이 객관적 내용을 옳게 얻는다면(2+3=5) 그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주체적 - 또는 '실존적' - 진리 안에서 강조점은 주체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 주체의 실제 삶과 '실존'에 주어진다. 여

10)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옮김(서울: 서광사, 1992), 14.

11)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5.

12)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6-7.

13)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14..

기서, ‘주체성이 진리인’ 곳에서, 주체는 본질적이고 또 정열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영원한 행복, 즉 그리스도가 약속하는 종류의 진리는 ‘객관적 진리’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삶은 객관성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나에게 참된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라면, 그것은 ‘주체적’ 진리이다.¹⁴⁾

카푸토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며, 기존의 플라톤-그리스도교 전통의 진리와 달리 냉정하고 꾸밈없는 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니체는 삶에서 직면하는 괴물과 악마의 잔인한 공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냉정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옹호자였다.¹⁵⁾ 카푸토는 가식이나 회색 없이 상황이 진실로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를 냉정한 진리(cold truth)라고 말한다. 그는 유령학적 모델을 취하면서, 진리 추구에 있어 회의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렬한 탐색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의 빛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점화되지 않은 중핵(core), 사전 은폐, 레테(lethe)의 강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과 관행의 불안정성, 우리 모델의 한계,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의 수정가능성과 유연성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다.”¹⁶⁾ 카푸토는 사건의 진리는 냉정한 진리(cold truth)라고 말한다. 그것은 사건이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미래이며 그 끝이 열려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직면해야 하는 진실이다.¹⁷⁾

카푸토는 객체적 진리보다는 주체적 진리를 찾으려 모델의 한계도 인정한다. 그는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해석학을 전개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전환에서의 열쇠는 해석학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논쟁은 서로 다른 프레임(컨텍스트) 간의 해석학적 전투이다. 이는 기존의 데카르트적 방법론의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는 입장과는 정반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접근은, 플라톤의 상위 세계에서 순수한 형태를 관조하는 영혼이라기 보다는, 실전을 통해 훈련된 눈을 연마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14) 존 D. 카푸토, 『How to Read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02-103.

15)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168-170.

16) John D. Caputo, *Specters of Go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2), 5.

1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20.

신과 순수한 이성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그 대안으로 - 내가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점이라고 부른 - 사건이라는 착상[사고방식, idea]이라는 전등을 켜게 되었다. 사건은 우리가 규칙(rule)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항의할 때마다 언급하는 것이다. 차이점, 특질(idiosyncrasy), 프로그램불가능성은 사건이다. 특이한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규칙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포스트모던적 진리관의 핵심이라면, 윤리학에서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건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살을 붙일 필요가 있다.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전환에서의 열쇠는 해석학이다. 해석은, 상대주의의 도랑에 빠지지 않으면서, 절대주의의 풍선을 완전히 찌르고 순수 이성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특권을 부인하는 편이다. ... 우리는 해석학에서의 움직임은 포스트모던하다고 부른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의 보편적 규칙과 확실성 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사물 자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전체를 머리에서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려고 노력했다. 해석학에서는 그것은 약간 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진리는 전체 없이 사물에 접근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절대적 지식은 애초에 지식이 가능한 바로 그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다.¹⁸⁾

모든 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 형이상학적 실체를 질문하는 규칙을 모색하는 것이 모던적이라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현상들의 바닥에 들어가 그 내면을 직시하고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것까지 드러내며 사태를 파악하려는 것은 포스트모던적인 진리 추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차이점, 특질, 프로그램불가능성을 발견하는 분별력이다. 이러한 냉정한 진리 추구는 사건을 파헤치고 근원적으로 숙고하는 급진적 해석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급진적 신학으로서 사건의 신학

2.2.1. 급진적 해석학, 급진적 신학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데 회의적이다. 그렇기에 현상을 설명하는 해석의 문제가 대두된다. 본래 해석학은 쉴라이어마허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적 해석학에 그 기원을 갖는다. 카푸토는 급진적 해석학(Radical Hermeneutics)을 설파하고 있다. 급진적¹⁹⁾ 해석학은 해체 작

18) John D. Caputo,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179-182.

19) 급진적(radical)이란 말은, 형이상학, 고백적 신학의 기반을 흔들어 해석의 깊은 층인 뿌

업이 그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단지 더 많은 해석이 있을 뿐이며, 어느 특정한 해석만이 잘 맞는 것은 아니다.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 창조적 해석, 파괴적 해석, 생산적 해석, 재생산적 해석들이 있으며 각각은 그 자체로 자기주장을 진술한다.²⁰⁾ 급진적 해석학은 맥락적, 근원적, 상황적, 유한한 관점이라는 해석학적 상황에서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인지를 겸손한 자세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²¹⁾ 급진적 해석학의 주된 생각은 단 하나의 지배적인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는 것이다.²²⁾ 급진적 해석학에서 모든 것은 해석이다.²³⁾

급진적 신학은 급진적 해석학에 의해 이해된[받아들여진] 하나의 형식(form)이다. 이때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 신들, 신성, 종교이다. 급진적 신학은 고백적 신학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는 급진적 해석학의 하나의 양상(樣相)[양식], 변곡(變曲)이다. 이 급진적 신학을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에서는 사건의 신학(theology of the event)이라 부르고 있다.²⁴⁾ 이 사건의 신학은 급진적 해석학의 실증 사례(instance)이다.²⁵⁾

포스트모던 철학 및 신학자들은 근대의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가 아닌 사건의 ‘사건성’(eventuality)에 관심을 가진다.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와 동일성의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탈형이상학(post-metaphysics) 운동을 해왔다. 카푸토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사건에 대해 천착한다.²⁶⁾ “포스트모더니즘

리(radix)를 드러내는 것, 이러한 구조를 보다 급진적, 포스트구조주의적으로 재독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Clayton Crockett, “From Sacred Anarchy to Political Theology: An Interview with John D. Caputo,” *The Essential Caputo: Selected Writings*, ed. B. Keith Putt(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8), 18.

21)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29.

22) John D. Caputo,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Cross and Khôra: Decons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345.

23) John D. Caputo,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347.

24) Clayton Crockett, “From Sacred Anarchy to Political Theology: An Interview with John D. Caputo,” 19.

25) Štefan Štofaniík. *The Adventure of Weak Theology - Reading the Work of John D. Caputo Through Biographies and Even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18), 21.

26) 이은주, “사건과 해체: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사건의 철학,” 『신학논단』

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이것이 사건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이고, 또한 급진적인 포스트모던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사건에 대한 신학이라고 답할 수 있다”고 카푸토는 말한다.²⁷⁾

2.2.2. 이름과 사건

카푸토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이름과 사건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해석학적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발생했거나 아직도 도착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이 표현되는 이름이 있다. 사건은 부름(call)의 구조를 갖는다면 이름은 사건을 위한 일종의 피난처, 임시 거처이다. 사건은 이름에 정박된다(보호되고 숨겨진다). 사건이 부름의 지위(vocative order)에 속한다면, 이름은 존재의 지위(existential order)에서 속한다. 사건은, 사물이 실제로 발견되는 존재의[현존하는] 조건 하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²⁸⁾

카푸토는 『하나님의 약함』에서 이름과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the name of God)은 하나의 사건이며 오히려 이 이름은 사건을 숨기게 된다. 신학이란 이러한 사건의 해석학이다. 신학의 작업은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풀어주어 자유를 주며,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다.²⁹⁾ 이름과 사건의 관계를, 수용불가능성(Uncontainability), 번역가능성(Translatability), 비문자화(Deliteralization), 과잉(Excess), 악(Evil), 존재너머(Beyond Being), 진리(Truth), 시간(Time)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수용불가능성(uncontainability). 이름은 사건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체(unity) 안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사건을 수용하고 그것에게 일종의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반면에서 사건은 어디에 수용될 수 없다. 그리고 사건은, 약속과 그 미래로, 기억과 그 과거로, 이름이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아냈던 그 결과로, 이름

68(2012), 147-149.

27) John D. Caputo, “Spectral Hermeneutics: On the Weakness of God and the Theology of the Event,” *After the Death of God*, John D. Caputo and Gianni Vattimo, ed. Jeffrey W. Robbi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47.

28)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58-60.

2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

이 어디에 안착하여 설 수 없게 만든다. 사건에는, 수용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어떤 것이 항상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같은 이름은 조건화되고 코드화된 기표 문자열에 속한다. 이름은 자연어에 속하고 역사적으로 구성되거나 구축된다. 이름은 역사적 힘, 세속적 위신을 축적하고 그 아래에 매우 강력한 제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이름은 조건지어지고, 코드화되고 유한한 반면, 사건은 끝없는 연결과 생산적인 파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하다.³⁰⁾

번역가능성(translatibility). 사건은 다원자가(多原子價, polyvalence), 복잡성 및 결정 불가능성으로 인해 단순한 발생과 구별되며, 사건은 다른 많은 이름으로 끝없이 명명될 수 있다. 이름은 끝없이 번역될 수 있는 반면, 사건은 이름이 번역하려는 대상이다. 즉 주자가 결승선을 향해 자신을 내달리게 하듯이, 이름은 사건을 향해 자신을 운반해야 하므로, 이름이 번역하고 자 하는 대상은 사건이다. 사건은 이름이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무엇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의도하는 바이다. 이는 불안정한 출처이며, 이름이 내달려 도달하고 자 하는 끝없는 목적지이다.³¹⁾

비문자화(deliteralization). 이름은, 사건을 손아귀에 꼭 잡을 수 없기에, 문자적으로 말하는 힘(literal force)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이는 (사건의) 이름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소란, 사건에 이름 붙이기, 이름 바꾸기, 이름의 문자적 뜻 벗기기, 이름의 문법 경시와 같은 것이다. 사건의 이름으로의 축소는 위험한 환원주의가 될 수도 있다. 시학이란 사건의 역동성을 묘사하고, 스타일을 추적하며, 적절한 비유를 통해 뜻밖의 힘에 대처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문자화하지 않는 설명을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들에 정박한 사건은 그 안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이름이 아무리 신성하더라도 이름으로 패쇄화되는 것을 방해해서 문자화, 존재론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사건은 고백적 신앙이나 신조적 형식에 사로잡힐 수 없다. 하나의 사건은 다양한 고백들 사이의 구별, 고백적 신앙과 세속적 불신 사이의 구별을 넘어서 보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언급한다[건드려 준다].³²⁾

과잉(excess).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능가한다. 우리는 사건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사건은 우리

3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3.

3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

32)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4.

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사건은 나에게서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며 나를 덮친다. 그래서 사건은 또한 도래(advent)이다. 사건은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처리해야 할 어떤 것으로 내게 찾아온다. 사건은 과잉, 범람, 놀라움이며, 철학적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수용불가능한 유입(발명)이며, 철학적 주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다. 사건은 난입, 과잉, 범람, 경제적 수지를 넘는 선물(gift)인데, 이는 경제학의 닫힌 고리를 죽 찢는다. 사건은 철학이 불가능하다고 부른 것에 속하며 불가능성의 경험을 이룬다[만들어 낸다].³³⁾

악(evil). 사건의 과잉이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악은, 보상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과잉을 보인다. 사건은, 헤겔적 본질(Wesen)과 같이, 시간 속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펼쳐지는 사물의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이름이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결 가능성이다. 사건은 일련의 대체들을 일으키나 본질화나 본질적 전개의 과정이 아니다. 어떤 것도 사건에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 모든 약속은 또한 위협이며 다가오는 사건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다가올 민주주의 약속에는, 다가올 국가사회주의의 위협이 있다. 사건은 본질의 전개가 아니고 지켜질 약속, 응답받을 부름/간청, 기도, 희망이다. 사건은 시류, 환경, 역사와 권력의 우연성, 즉 세상적 힘에 영향을 받기 쉽다.³⁴⁾

존재너머(beyond Being). 사건은 현실적 존재나 실체, 존재 자체와 관련되지[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체나 존재의 이름 안에 지글지글 끓는 충격이나 열망, 꿈꾸거리며 태어나는 어떤 것, 실체적 혹은 존재론적 질서에 단단히 조일 수 없는 어떤 것과 관련된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사건은 실체를 범람시킨다. 즉 그것은 실체의 이름의 경계 안에 쉽게 안주하지 않고, 초대나 부름, 간구, 도발, 간청이나 약속, 찬미와 축복과 같이 쉽없이 움직인다. 사건은 실체-존재론적 에피소드가 아니다. 존재의 심장 안에, 존재의 이름 안에 소동(disturbance)이다.³⁵⁾

진리(truth). 이름의 “진리”는 사건에 입각해서[기초해서] 만들어진다는[세워진다]. 사건의 진리란, 사건이 할 수 있는 것, 이름으로 숨겨진 열린 결말의 예견 불가능한 미래, 그 수용불가능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진리는 빛보다는 어둠과 같으며, 사건 자체는 약속이기에 기회이자 위협이다. 그런 점에서 진리는 우리가 힘겨운 진실, 가

3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4-5.

3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5.

3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6.

혹한 진실을 말할 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진리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인 이유이다.³⁶⁾

시간(time). 사건은 환원할 수 없는 시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사건과 함께 사는 것은 시간 속에서 사는 방식이지만 연대기적이기보다는 카이로스적이다. 사건의 움직임은 시계의 똑딱거림으로 시간을 썰 수 없으며,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자아 발견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현재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미래를 여는 변혁의 순간과 관련이 있다.³⁷⁾

사건은 존재자와 달리 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이 일어나도록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사건은 행위자도 행위를 당하는 자도 아니며, 시공간 조건 하에서 실제 형태를 취하는 가상의 성질(virtualities), 차등적 힘(differnetial forces)이다. 즉 사건은 이름으로 표현되며 사물(things)로 현실화된다.³⁸⁾

2.2.3. 사건의 신학

신(하나님)이라는 이름(단어)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 이해 속에서 제한된 의미(기의)만을 가지는 기표일 뿐이며,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제한 속에 있으므로 한 시대의 잠정적인 위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 이름은 전통적으로 전능한 힘(divine omnipotence)의 최고 존재(Supreme Being)를 가리키며 남용되기도 하였다.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제한된 개념으로 정착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모순된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해체적 시도를 할 수는 없을까? 카푸토는 해체적 신학을 하고자 하며 사건을 주시한다.

이름은 사건을 임시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며 사건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사건은 이름이 도달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오히려 사건들은 이름 주위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이름들이 편히 쉬지 못하게 한다. 사건이 야기하는 뒤흔듦은, 오히려 약속과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카푸토에 의하면 사건은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며, 어떤 일 속에서 현존하지 않고 진행되는 그것이다. 신의 이름은 사건을 머

3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5-6.

3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6.

38) John D. Caputo,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319.

물게 하기 때문에, 신학의 해체적 기능은 그 이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풀어놓고, 해방시키며, 사건의 일어남을 억누르는 힘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카푸토는 생각한다.³⁹⁾

카푸토에 의하면, 사건은 어떤 것(thing)이 아니고, 것(thing) 속에서 휘젓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건은 어떠한 것 속에서 현실화될 수는 있으나 잠정적이고 수정의 가능성 속에서만 가능하다. 어떠한 것이나 일어나는 일들의 변화무쌍함은 그것들 속에 머무는 사건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사건은 하나의 신앙고백이나 신조의 형태로 정형화되거나 갇힐 수 없다. 반면, 이름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영속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임시적으로 사건을 잡고 있을 뿐이다. 사건은 이름을 퇴위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⁴⁰⁾

사건들은 또한 우리를 사로잡으며, 주체나 자아의 범위를 능가한다고 카푸토는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사건에 응답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사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사건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가 대면하고 상대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내보인다는 것이다. 사건은 예상과 예측의 지평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건은 그 지평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평을 산산조각내고 그것 위로 넘쳐흐르기 위해서 지평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적 사건을 말할 수 없다. 모든 사건은 그것의 예상된 지평에 대항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건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사건은 초과이며 흘러넘침이며 놀라움이라고 카푸토는 생각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밖으로부터의 도래로서의 사건은 주체가 어떠한 돌아옴(대가)을 예상하지 못함 속에서 지출을 요구한다. 이것이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건은 실체의 전개가 아니고, 지켜지기를 기다리는 약속이며, 반응해야 할 부름이며 요청이고,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기도이며,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희망이다. 그러므로 사건은 모든 시간 속의 우연적이고 의존적인 요소들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두기를 원하며, 사건의 약속을 배신하게끔 시도한다고 카푸토는 지적한다.⁴¹⁾

3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

40)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복음과 실천』 54(2014년 가을), 201.

41)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202-203.

카푸토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사건의 진리로서, 열려 있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서의 진리이고, 그것의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답을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성의 진리는 빛이라기보다는 어둠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카푸토는 말한다. 그것은 힘들고 가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는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인식론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카푸토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요약적으로 정리한다. “나의 신학적 관심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관심의 작용(function)에서 나오며, 하나님 이름에 대한 관심은 사건에 대한 관심의 작용이며, 사건에 대한 관심은 기도에 대한 관심의 작용이다. 나는 항상 사건을 위해 기도한다.” 신학이 하나님의 이름의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이 그 이름에서 동요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이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미한다는 것은, 이름이 얻고자 하는 것, 약속하는 것, 탄식하며 갈망하는 것을 말한다.⁴³⁾

신학에서 사건은, 해체가 조건적인 이름을 분해해서 이름에 의해 숨겨진 무조건적 사건을 해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름의 해체라고 불릴 수 있다. 주어진 이름으로 약속된 사건은, 데리다가 부르는 해체불가능한 것(the undeconstructible)이다. 사건은 항상 해체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약속된 것 혹은 요청된 것,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로 도착한 것은 현재 조건에서 도착한 것이며 그것은 해체 가능하다. 사건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이다.⁴⁴⁾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이름에서 동요하는 사건을 향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이름이 유발하는 일련의 사건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오고, 신학적인 사고는 그 반응으로 온다. 신학은 하나님 이름으로 감춰진 사건에서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 그것은 사건을 듣고 유의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음악을 말씀으로 되게 하는 방식으

42)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203.

4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6.

4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6.

로 온다. 하나님 이름은, 철학자들이 사변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이고 생명력 없는 단어가 아니라, 삶의 불 속에서, 일상 생활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버려진 말이다. 이는 가장 엄숙한 경우 만큼이나 가장 우연한 경우에 심지어 평범한 장소에서 친근함을 나타내며, 우리가 비는 단어이다. 그것은 가장 엄숙한 경우와 같이 가장 캐주얼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로, 친숙하지만 심지어 일상적이지만 밑바닥이 없는, 항상 혀 끝에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름이 사건을 숨기기 때문이다.⁴⁵⁾

2.2.4. 부름과 응답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부르는 어떤 것이지, 우리가 부르거나 명명한 식별 가능한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 이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현재 현실로 여겨지는 것 너머에 약속된 실재(reality)에 대한 어떤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⁴⁶⁾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함이다. 카푸토는 하나님을 이름과 개념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름 안에 담긴 사건으로 ‘부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부름은 무조건적이지만 결코 강요할 힘은 없는 하나님의 약한 힘이다.⁴⁷⁾

사건은 부름으로부터 오지만 부름의 정체나 이름에 대한 질문, 즉 존재론적 기원의 질문을 유예해야 한다. 그럴 때 부름이라는 현상학적 특징을 엄격히 지킬 수 있고, 부름의 약한 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름은 ‘누가’라는 실체적 특성보다 ‘부름’ 자체의 현상이 힘을 갖는다.⁴⁸⁾ 카푸토는 부르는 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답(yes)이라고 말한다.

약한 신학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간청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부르는 자를 찾는 합리적인 작업 과정은 강한 신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일 존재라는 힘의 측면에서 명확한 위치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간청하는 약

4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6-7.

4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0.

4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53.

4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14.

한 부름이라고 할 수 없다. 유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름이어야 한다.⁴⁹⁾

무조건적인 호소, 즉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지만 주권은 없는 부름의 사건은, 하나님 이름 안에서 찾게 된다. 모든 무조건적인 호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정의의 요청 없이는 어떤 권위도 정당하게 행사될 수 없다. 사건의 신학에서는 부름의 미약한 구조와 이 부름에 의해 이끌어 낸 응답에 더 끈질기게 집착한다. 이것이 이 부름의 가장 좋고 유일한 증거이다.⁵⁰⁾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에 동요하는 사건은, 존재 넘어/아래/없는 선(goodness)으로 부름이다. 카푸토는 이와같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예(Yes)라고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카푸토는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통해 진리가 발생하고,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고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랑의 신이 부를 때,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부름이고 우리는 이에 응답해야 하고 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사건을 일종의 부름이란 용어로 이해한다면, 부름에 대한 카푸토의 해석은 해체적 방향으로 철저히 기획되어 있다. 해체적 부름은 메시아적 소환, 요청, 주장, 탄원, 약속 또는 유혹과 같은 것으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⁵²⁾ 하나님은 사건이라는 현상의 부름-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부름에 대한 예(Yes)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결의가 담긴 응답이다.

2.3. 강한 신학(strong theology)에서 약한 신학(weak theology)으로

일상적 경험이든 사회정치적 차원의 경험이든 인간의 세계경험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대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의 큰 줄기였다. 그러나 쇠락하는 역사주의와 함께 지난 세기에 전통적인 사건의 신학(섭리론, 신정론, 신의 활동론)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주된 배경은 전능 개념의 강한 신학(strong

4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14-115.

5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53.

51) 존 D. 카푸토, 『종교에 대하여』, 최생열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40.

52) 이은주, “사건과 해체: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 156.

theology)에 뿌리를 둔 전통적 그리스도교 ‘믿음’의 체계와 우리가 세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 사이에 발생한 단절의 문제에 있다.⁵³⁾

강한 신학이란 한 마디로 후기 콘스탄티누주의적(post-constantinianism) 신학을 의미한다. 콘스탄틴 시대에 제국의 종교로 변질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세계 통치의 표준으로 예수가 아닌 키케로(Cicero)를 채택하게 된 역사를 강한 신학이라 한다.⁵⁴⁾ 콘스탄티누주의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은 존재의 논리인 ‘세계의 내적 논리’를 통해 신성을 이해했다. 세계의 논리란 이성, 질서, 가능성, 동일성의 원리들을 선호하는 세상적 논리로서 이것은 강한 힘을 동경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론 이해를 전능과 강함이란 표상과 상징들로 윤색시켰다. 여기서 카푸토의 강한 신론 비판은 논리와 강함으로 이해된 초월(이름)과 세계가 경험하는 사건 간의 불연속적인 관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논의된다.⁵⁵⁾

카푸토는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의 모두에서 자신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에 대한 열정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건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⁵⁶⁾ 여기에서 카푸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 즉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적 접근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저서의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신학이 하나님의 강함을 중시했다면, 카푸토는 하나님의 약함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카푸토는 아일랜드의 Dublin City University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마크 둘리(Dr. Mark Dooley)와 대담하면서, 자신은 약함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을 말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약함”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학적 자세(posture)에서 약함에 대해서 논하고 싶었다고 한다.⁵⁷⁾ 카푸토는 닐 드루(Neal Deroo)와의 또 다른 대담에서,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

53) 이은주, “사건과 해체: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 147.

54)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2007), 100.

55) 이은주, “사건과 해체: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 153-154.

5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2.

57)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29.

에서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힘, (최고) 주권, 전능보다는 약함의 관점에서 재기술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부제가 보여주듯이 신학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분석(강한 신학, strong theology)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사건”을 분석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다.⁵⁸⁾

강한 신학은 강력한 고백적 정체성(a powerful confessional identity)과 강력한 교조적 내용(a powerful doctrinal content)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정통신학이 그것이다. 약한 신학은 오히려 훨씬 미결정적 의미의 하나님을 가진다. 그 종교적 의미는 오히려 얇다. 그것은 덜 공격적이다. 약한 신학이라는 말은 카푸토가 바티모(Gianni Vattimo)와 “약함의 사고(weak thought)”⁵⁹⁾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가지고 온 용어(phrase)이다. 바티모는 형이상학(의 강한 사고) 이후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약한 신학은 결정적이고 고백적인 영역(boundary)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사고하는 방식이다.

카푸토는 전통적인 신학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전능을 강조하면서 강한 신학(strong theology)이 되었고, 이는 특히 하나님 이름에서 그 힘과 명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학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관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며 천지의 창조주이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하다 보니, 오늘날 “신학이 자신에 대해 분열된 집이며, 지적으로 양극화될 정도로 자기 이해가 부족하며 힘(power)의 높이와 약함(weakness)의 깊이 사이에서 격렬하게 동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건의 해석학, 사건의 신학으로서 약한 신학(weak theology)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한다.⁶⁰⁾ 물론 카푸토는 사건의 해석학이 전통적으로 견고한 신학과 대조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 해석학은, 기껏해야 전통을 채우는 풍성하고 견고한 신학과 대조적으로 다소 영양이 부족한 신학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데리다(Derrida)가 “독단적이지 않은 교리의 이중선(a non-dogmatic doublet of dogma)”이라고 부르는 정신으로 무언가를 제안한다 ... 그것을 데리다의 “종교 없는 종교”를 동반하는 “신학 없는 신학”, 바

58) John D. Caputo,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319.

59) “약함의 사고(weak thought)[il pensiero debole]”는 Gianni Vattimo의 저서 『The End of Modernity: Nihilism and Hermeneutics in Postmodern Cultu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다.

6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7-9.

티모의 "약한 사고"를 동반하는 "약한 신학", 또는 벤야민의 "약한 메시아적 힘"을 동반하는 약한 메시아 신학으로 생각하면 된다.⁶¹⁾

신학이 높기와 깊이 사이에서 양극화된 것은 이름과 사건을 구별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름은 세상에 속하고 세속적인 명성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이름이 강한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으로 세계를 교란시키는 이치[명령](order)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약하지만 무조건적인 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사건은 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자연어의 일부도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유령(specter)⁶²⁾에 가깝다⁶³⁾

카푸토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주의 전능한 창조주로 여기고 세상 문제의 강력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요행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약함에 천착한다.

사건은 연약한 "아마도"의 이치에 속한 것으로, 이름의 세속적인 힘에 거의 익사할 뻔한 고요한 목소리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하고 간청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 실재 존재자(ens realissimum)나 우주의 전능한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약한 힘"(weak force),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가 말하는 약한 존재(ens diminutum)로 가정해 보자. 신학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모두 거칠어지고 가루가 된" 창가에 앉아서, 맹렬한 힘이 성큼성큼 다가올 것을 요행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⁶⁴⁾

6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7.

62) 유령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후 데리다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데리다는 유령이라는 개념을 유령론(hantologie)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데리다에게 유령론은 서양 철학의 근간으로서의 존재론(ontologie)을 대체하는 새로운 철학의 주제를 가리킨다. 곧 그가 보기에 존재론은 현전, 생생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사태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라는 시간적 양상과 현전이라는 존재의 양상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유령론은 이러한 존재론이 "귀신 쫓듯이 몰아내는exorcise" 유령의 사태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령은 정의상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지만 현전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가시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령은 존재의 가상적 모습이라기 보다는 현전으로서의 존재가 은폐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존재보다 더 근원적인(또는 적어도 현전으로서의 존재에 항상 이미 따라다니는) 어떤 사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95. 용어해설)

6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7-8.

6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8.

카푸토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건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름의 세속적 명성/힘을 차단하고 이름의 고정성을 유보하고자 한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를 부르는 사건에 대한 명명으로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의 약한 힘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나 정의의 이름처럼 끝없는 도발하는 사건의 이름이다. 나는 그것이 없애지는 끝없는 대체의 사슬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가능성, 번역가능성, 결정불가능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 동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 문제는 신이 존재하는지 또는 우리가 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데리다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용하면서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끝없는 이름 아래에서 사랑받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나는 불가능자(the impossible)의 가능성을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자의 가능성”이 최고의 설명인지, 단순히 최고의 이름인지(이는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를 고백해야 한다. 이것은 끝없는 고백과 혼란의 주제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울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주제를 말하고 싶다. 나는, 부르심 자체의 약한 힘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원인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실체적인 강한 힘에 대한 문제를 중단한다. 부르심은 자신에 근거해 있지만, 강제할 실체적 권위는 없다.⁶⁵⁾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3세기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로 올라간다. 그는 논리적 존재(ens logicum)의 특성을 약한 존재(ens diminutum)로 본다. 그것은 실존하는 자연적 존재에 비해 약한[희미해진] 존재를 의미한다. 논리적 존재는 자연적 존재나 정신적 존재와 다르며, 비현실적인(unreal) 것이다. 이 영역(domain)은 인과성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는 발생, 소멸, 과정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⁶⁶⁾ 하나님의 이름을 실재 존재자로 보지 않고, 둔스 스코투스가 말하는 논리적인 약한 존재, 약한 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리다는 “어떤 주권이 없는 무조건적인 것, 권력이 없는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⁶⁷⁾ 타자에 대한 응답, 무한한 책임, 정의가 바로 그러한 권력 없

6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15-116.

66) Martin Heidegger, *Duns Scotus's Doctrine of Categories and Meaning*, translated by Joydeep Bagchee, Jeffrey D. Gower(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2), 63.

는 무조건적인 것이며 약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법과 정의를 변증법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정의는 약한 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약한 힘인 정의는 강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데리다의 『비밀에 대한 취향(A Taste for the Secret)』에 의하면 권리는 변증적이지만, 정의는 변증적이지 않으며, 정의는 약한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이러한 고찰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법의 힘에 비해 약한 것으로서의 정의 ‘그 자체’에 대해 사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나를 항상 걱정시키는 것은 이질적인 것, 즉 반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변증법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의 힘(the greatest force of opposition) 또는 가장 큰 약함(the greatest weakness)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약함의 이미지가 변증법에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꼈다. 변증법을 무시하는 것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다. 법[권리]은 변증법적이나 정의는 변증법적이지 않고 정의는 약하다. 특히 니체는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되는 전환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고 이해했다.⁶⁸⁾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1:25)라고 말하고 있다. 처형당한 메시아에 관한 담론이 신의 약함에 관한 담론이라는 점은 비교적 명료하다. 여기에서 이 담론이 어떤 힘(약함의 힘)을 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명료하다. 법의 폭력에 의해 압도되는 메시아의 약함(또한 어쩌면 신의 약함 또는 신적인 것의 약함)은 법의 폭력을 노출시키고, 이에 따라 법보다 더 강력하며, 그리고 실제로 진정하게 법(말하자면 또한 국가, 제국 등)을 이기는 것이다. 또한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말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바로 순교라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법의 힘의 작용으로 인한 죽음에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법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다.⁶⁹⁾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으로서 인간이 되심

67) Jacques Derrida, “Peformative Powerlessness: A Response to Simon Critchley,” *Constellations* 7, no. 4, (2000), 467-468.

68) Jacques Derrida, Maurizio Ferraris, *A Taste for the Secret*, trans. Giacomo Donis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2), 33.

69) 테드 W. 제닝스, 『데리다를 읽는다 / 바울을 읽는다 : 정의에 대해서』, 박성훈 옮김 (서울: 그린비, 2014), 156-158

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힘이 아니라 진실로 약한 힘이다.⁷⁰⁾

2.4. 해체주의

카푸토는 종교와 신학에서 해체 철학의 개척자이다. 카푸토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 신학간의 대화를 시도했다. 1980년대 후반에 해체는 종교 영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데리다가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충실(fidelity to the Other)에 영향을 받은 후의 일이다. 카푸토는 1980년대와 90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해체 작업을 전개하여 『Radical Hermeneutics(1987)』, 『Against Ethics(1993)』,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1997)』를 포함하여 해체와 윤리 및 종교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일련의 책을 저술했다.⁷¹⁾ 카푸토가, 데리다와 대화를 하면서 주석을 통해서 해체를 명료하게 설명한 책인 『해체주의 요약(Deconstruction in a Nutshell(1997)』은 미국 철학계에 데리다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해체주의를 특징짓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해체, 불가능자, 사건, 타자, 메시아적인 것 등을 정리해 본다.

2.4.1. 해체

해체주의의 첫째 용어는 “해체”(déconstruction) 자체다. 대중적 어법에서 “해체”는 일반적으로 “파괴”(destruction)을 조금 더 멋있게 말하는 한 방식이다. 어떤 것이 무너지거나 사기로 밝혀질 때 그것이 해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이나 신학에서 해체가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데리다에서 그 의미를 가져온 카푸토는 해체에 대한 단 하나의 확정된 정의를 제시하기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행위가 해체의 정신에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체는 사건이다. 즉 어떤 존재하는 사상이나 실재 내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폭발할 때 일어나는 것, 파괴가 아

70)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30.

71) Mark Manolopoulos, "Caputo in a Nutshell: Two Very Introductory (and Slightly Critical) Lectures," *Postmodern Openings Journal*(Volume IV, Issue 2, 2013 June), 24.

나라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는 것이다. 해체는 언제나 그 자체 너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텍스트나 제도 내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⁷²⁾

카푸토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 논의 전개를 위해서 해체를 정의하기도 한다. “해체란 우리의 모든 신념과 실천이 구성이며, 구성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해체될 수 있으며, 또 해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념과 실천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체는 끝없는 재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며, 하늘에서 떨어진 기성의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⁷³⁾ 카푸토는 해체의 “의미와 임무”에 대해 묘사하면서 해체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의미”나 “임무”는 사물들(제도, 전통, 사회 등)을 하나로 모으는 반면, 해체는 이 범위 너머로 잡아당기고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모든 모으는 일들을 저지하고 분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해체는 그 한계를 압박한다.

사물들 -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크기와 종류의 텍스트, 제도, 전통, 사회, 믿음, 관습 - 은 정의할 수 있는 의미와 결정할 수 있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언제나 어떤 임무가 부과하는 것 이상이며, 그것들이 현재 차지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사물들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앞으로 올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물의 의미를 고정하려 하고 그것을 임무의 위상 안에 고착시키려 할 때마다, 사물 자체는 -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 사라진다. ... 어떤 “의미”나 “임무”는 밤 깎질처럼 사물들을 담고 꽉 채우는 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하나로 모으는 반면, 해체는 이 범위 너머로 잡아당기고,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모든 모으는 일들을 저지하고 분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해체는 그 한계를 압박한다.⁷⁴⁾

해체(déconstruction)라는 프랑스어 단어는, 철학에서의 모든 구성을 필연적으로 파괴로 간주하면서 하이데거가 전통적 개념들에 대한 재구성적 해체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독일어 단어 Abbau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데리다가 해체는 사물에 일어나는 것, 즉 특정 주체의 의도, 의식 등에 의탁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해체는 스스로를 해체한다. 해체가 겨냥하는 일체의

72)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1-922.

73) 존 카푸토, 『포스트모던 해석학』, 이윤일 옮김 (서울: 도서출판b, 2020), 17.

74) John D. Caputo,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97), 37.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2-923에서 재인용)

대립들에서, 두 개의 대립되는 항들(정신/물질, 주관/객관, 텍스트/의미, 표상/현전, 현상/본질 등) 가운데 하나는 다른 하나를 가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위에 놓이며, 모든 고전적 이원적 대립은 결코 중립적 차이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폭력적 위계의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데리다는 누누이 강조한다.⁷⁵⁾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적(logocentric) 편견의 증상 - 모든 것에 대한 중심점을 가지려 하고 이러한 중심으로 모든 것을 환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 을 비판한다.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라는 용어를 ‘현전’(presence: logos)의 개념에 그 중심을 두고 재현되는 서구 사상의 경향을 특징짓는 말로서 사용했다. 그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그리고 참으로 서양사 일반을 “순전히 낱말적인 의미에서 현전으로서 존재자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로 정의했다.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이분법적 대립을 버리도록 제안한다. 데리다는 중심화하는 현전의 개념이 결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도 개념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로고스중심주의’와 단절할 것을 제의한다. 그는 원래의 현전이라고 하는 지배적 범주를 그 자신의 부재 또는 그것의 보충물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⁷⁶⁾

대리보충(supplément)⁷⁷⁾이란 보완을 위해 어떤 것이 부가된 것, 그리고 단지 ‘외부적인’(extra, 바깥을 나타내는 라틴어) 것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것은 내부자도 아니고 외부자도 아니면서, 그리고/또는 그것은 동시에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부분을 형성하며, 속하지 않으며 속해 있다.

언어는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대해서 대리 보충할 뿐이다. 음성 언어는 계약적 기호들을 통해서 사고를 대리 표현하며, 같은 이치로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대리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쓰는 기술이란 사고의 간접적 대리 표현이다. 대리 표현이 현전으로 자처하고 기호가 사물 그 자체로 행세할 때 문자 언어는 위험하다.

대리보충은 부족함을 보충할 뿐이다. 그것은 개입하거나 다른 어떤 자리를 대신하여

75)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서울: 민음사, 2010), 86-87.

76) 리처드 커니,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임현규 외 옮김 (서울: 한울엠플러스, 1992), 153-155.

77) 대리보충(supplément)은, 『로베르 사진』에 따르면, 보완(complément)과 달리 일종의 ‘외부적 첨가’이다.

슬며시 끼어든다.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대리 표현하고 이미지를 만든다면 그에 앞서 존재하는 현전의 결함 때문이다. ... 대체물로서 대리 보충은 단지 현전의 실증성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두각도 나타내지 않으며, 그 위치는 빈 곳의 표지에 의해 구조 속에 할당된다. 그 어딘가, 그 무엇인가는 자신으로는(de soi-même) 채울 수 없으며, 기호와 대리로 메울 때만 완수될 수 있다. 기호는 언제나 사물 자체의 대리 보충이다.⁷⁸⁾

대리보충⁷⁹⁾은 존재 개념에 초점을 맞춘 철학인 존재론^{ontology}의 이름 아래에서는 사유될 수 없다. 오히려 후기 저작인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데리다가 ‘유령학’^{haulology}이라 명명했던 것의 문제일 수 있다. 대리보충은 출몰한다. 그것은 유령적이다. 그 자체로는 현전도 부재도 아니며 흔적으로 남는 효과를 묘사한다는 것, 그것이 그 지형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해체를 구축하는 방식이다.⁸⁰⁾

2.4.2. 불가능자

해체주의의 둘째 용어는 “불가능자”(the impossible)이다. 카투토에 따르면, 해체는 결국 “불가능자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정의, 선물, 환대, 사랑이 불가능자이다. 카푸토는 해체가 결국 “불가능자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고 말한다. 카투토에게 해체는 불가능자에 대한 일종의 열정(passion) 혹은 기도(prayer), 해체될 수 없는 불가능자에 대한 긍정으로 여겨진다.⁸¹⁾ 수월하게도 가능한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미래현재(future present)인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자는 예상과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

78)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361-62.

79) 대리보충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양 작가들은 문자가 사고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로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유는 문자를 벗어나서 나타낼 수 없다. 사유는 전체가 되기 위하여 문자의 대리보충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문자가 없는 사유는 그 자체로 완전히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데리다는 말한다. 그런데 문자는 사고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보충의 과정은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이성의 작동과 사유와 관련해서 기원이라는 이름도 대리 보충성의 체계 안에 위치한 점에 불과하다는 파격적인 진술을 한다. 또한 하나의 대리보충으로서 기표는 단지 부재하는 기의를 재현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여적인 현전과 더불어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유형의 기표를 대체한다(Jasper Neel. Plato, Derrida, and Writing.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8), 161-165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서울: 민음사, 2010), 400-401에서 재인용).

80) 니콜러스 로일,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오문석 옮김 (서울: 엘피, 2007), 121-123.

81)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63.

로, (p와 ~p와 같이) 논리적으로 단순히 말하는 모순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것의 가능성으로 절대적 미래라고 부를 수 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없고 불가능할 때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듯이, 그것은 사건의 미래이다.⁸²⁾

불가능자의 대표적인 예는 정의이다. 카푸토가 말했듯이 법이 없는 정의는 단순한 꿈이다. 테리다의 주장을 요점으로 말하면, “정의는, 힘 있는 법이 보다 정의롭고 정의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무조건적인 요구”이다.⁸³⁾ 정의는 법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정의는 상황의 특이성, 개인의 특질(idiosyncrasy)과 차이에 민감한 것이다.⁸⁴⁾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유사-초월적인 것”, 즉 우리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결코 구체화될 수 없는 이상이다. 우리는 단지 정의와 실제로 비슷한 것의 암시만을 갖는다. 그것은 한 나라의 법 같은 것들 내에 숨어 있으며 언제나 오고 있지만, 결코 온전히 도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 즉 법률 제도는 정의라는 불가능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이 제정될 때 고려되지 않았던 특이한 경우에 대해 개방시키기 위해서다. 불가능자는 또 다른 말로 “해체할 수 없는 것”(the undeconstructible)이다.⁸⁵⁾

테리다는 1994년 미국 빌라노바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좌담에서 신앙도 불가능자로 설명하고 있다. 키르케고르가 종교적 담론을, 단순히 가르치고, 길들이고, 통달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faith)의 이름으로, 씩씩하고 겨루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종교가 일련의 신념, 교리, 제도를 의미한다면, 종교는 신앙의 이름으로 해체될 수 있고 또한 때때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증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 “나를 믿으라”고 한다. 비록 거짓 증언

82)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62.

83)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62.

84) John D. Caputo,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65.

85)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3-925.

을 한다할지라도, 여러분은 타자에게 말을 걸어 여러분을 믿으라고 한다. “나를 믿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소”는 신앙[약속]의 이치에 놓인 것이다. 그것은 이론적 진술이나 결정적 판결로 간단히 정리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약속]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종교에 의해 모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약속]은 절대적인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행위의 구조는 기존 종교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⁸⁶⁾

신앙은 정의나 선물과 같이 절대적 보편성이기에 해체될 수 없다. 반면에 종교는, 그것이 일련의 신념, 교리, 제도를 의미한다면, 해체되어야 한다. 종교는 신앙에 의해 해체될 수 있고 때로는 해체되어야 한다.

2.4.3. 사건

해체주의의 셋째 용어는 “사건”(event)이다. 해체는 반(反)형이상학인데, 이는 해체주의는 카푸토가 “비밀”(the Secret)이라 부르는 것을 믿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밀은 나타남의 배후의 실제적 물자체, 객관적으로 실제적이고 정적이며 이성이나 신비적 이해력으로 알 수 있는, 매일의 경험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실재다. 그것은 “현존”(presence), 즉 참되고 최종적이고 이미 언제나 거기에 있어야 하는 무엇이다. 해체주의의 비밀은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테리다가 유명하게 말한 대로,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해석이고 해체할 수 있다. “불가능자”만 예외인데, 이것은 해체할 수 없지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건”은, 해체 언어에서, 불가능자의 침입 또는 발생,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의 불가능자의 출현이다. 사건은 해체로, 폐쇄된 것을 개방하고 해결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폭발시킨다. 그것은 변혁이다. 예를 들면, 정의는 언제나 사건이다. 정의는 제정되어야만 한다. 즉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 “정의는 타자에게 주어진 환영으로, 거기서 내가 ...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의는 내가 타자에게 내미는 환대이며, 보답 없는 지출이다.”⁸⁷⁾ 그럴 때 정의가 미래로부터 우리의 현재로 침입한다. 즉 그것의 도래는 언제나 계기이지, 사물이 아니다.⁸⁸⁾

86) John D. Caputo,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21-22.

87) John D. Caputo,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149.

88) 로저 올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5-926.

2.4.4. 타자

해체주의의 넷째 용어는 “타자”(the other)이다. “타자”는 낯선 것, 다른 것, 동일하지 않은 것, 동화될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해체주의는 “타자의 정치학”(the politics of the other)이다. “해체는 텍스트[또는 제도 또는 무엇이든]가 깊은 우물과 같이 ... 단순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는 우상이 되는 것을 막는 한 방법이다.”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동일성, 익숙함, 똑같음에 끌리므로 우리는 다른 것, 낯선 것, 타자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타자는 초월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변혁, 사건, 정의는 오직 타자와의 만남과 타자에 대한 적응에서 발생한다.⁸⁹⁾

누가 타자인가? 카푸토가 보기에,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질문에 대답했다. 카푸토에게 타자는 외부인, 적, 약하고 비참한 자, 궁핍한 사람, 무력한 노숙자다. 이들이 바로 해체가 의도하는 대상이다. 카푸토는 해체주의의 몇 가지 용어를 연결해서 말한다. “정의는 타자에 대한 관계”고 “해체는 타자의 도래[사건]에 대한 긍정이다.”⁹⁰⁾

2.4.5. 메시아적인 것

해체주의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어는 “메시아적인 것”(the messianic)이다. 해체는 “메시아적인 것” 또는 “메시아성”(messianicity)이라 불리는 “순수한 형태의 희망”을 믿는다. 그것은 “타자의 들어옴”이다. 그것은 동일성을 불안정하게 하고 자기 보호적 울타리를 강제로 개방시킨다. “해체를 꿈꾸는 메시아적 미래, 그 갈망과 열정은 앞으로 올 예견할 수 없는 미래, 틀림없이 앞으로 올 것, 앞으로 올 정의, 민주주의, 선물, 환대다.”⁹¹⁾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메시아주의와 구분되는 메시아적인 것 또는 메시아성에 관해 강조한 것은 메시아적 구조가 보편적인 구조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모든 언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약속이다. 약속의 보편적 구조 및 장래에 대한,

89)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6.

90)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7.

91) 로저 울슨,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927-928.

도래에 대한 사실이야말로 내가 메시아적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메시아적 구조는 이른바 메시아주의(유대교적이거나 그리스도교적인 또는 이슬람적인 메시아주의), 메시아의 결정적인 형태와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메시아적 구조를 메시아주의로 환원하자마자 여러분은 보편성을 환원시키고/제거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들, 예컨대 성서의 종교들은 이러한 일반 구조, 곧 메시아성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가에 관한 문제 - 이는 내게는 진실로 문제이며, 수수께끼이다 - 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험의 구조로서 메시아성의 일반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토대 없는 토대 위에 계시들이 존재해왔다(이는 우리가 유대교, 그리스도교 등으로 부르는 하나의 역사다). 이는 한가지 가능성이다.

다른 가설은 계시의 사건들, 성서의 전통들, 곧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전통들은 절대적 사건들이며, 이러한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환원불가능한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주의가 없다면,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등과 같은 사건들이 없었다면, 메시아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독특한 사건들이 이러한 보편적 가능성들을 드러내거나 계시해줄 것이며, 오직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메시아성을 기술할 수 있다. 마땅히 나는 이 두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 이 때문에 당분간 나는 '메시아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⁹²⁾

데리다에게 메시아적인 것은 해방의 경험의 보편적 구조를 가리킨다. 데리다에게 메시아적인 것은 성서의 종교들에 고유한 현상이 아니며, 모든 해방 운동에 기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경험의 구조다.

2.5. 소결론

18세기 이후 토대주의와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적 사고에서는 모든 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나, 메타 내러티브에 회의적인 포스트모던 사고에서는 다양성을 중시하며 삶에 있어서 진리를 찾고자 한다. 여기서 주된 관심은, 과학적인 법칙이나 개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방식, 삶과 실존이다. 카푸토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급진적 해석학이다. 여기서 사건은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미래이며 열린 결말이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직면해야 하는 진실이다. 이러한 급진적 해석학적 입장에서 신학을 다루는 것이 급진적 신학이며, 특히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이를 사건의 신학이라 부른다.

92) John D. Caputo,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23-24.

그래서 카푸토는 이름과 사건을 구분한다. 이름은 사건을 한시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명명하는 것이다. 이름은 사건을 임시적으로 담을 수는 있으나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름이 고정되지 않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이름이 아닌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도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제한 속에서 한 시대의 잠정적 위치를 갖는다. 반면 하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름으로 밖에는 가리킬 방법이 없는, 사건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가 대면하고 상대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 부름, 지켜지기를 기다리는 약속,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기도,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희망이다. 그것은 주체나 자아의 범위를 능가하는 초과, 흘러넘침, 놀라움이다. 그것은 항상 약속된 것, 요청된 것으로 오는 도래이다. 그것은 실체의 전개가 아니다. 카푸토의 신학은 이름,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오기에 그 자신이 사건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이름을 실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명명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창조주, 전지전능한 최고 존재라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전능을 강조하면서 강한 신학이 되었고 그 폐해도 많았었다. 카푸토는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나 정의의 이름처럼 끊임 없이 도발하는 사건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함을 느낀다. 하나님 나라도 실체가 아니라 국외자가 주인이 되는 전복의 비전이라면, 그곳에는 진정한 용서와 환대가 있는 나라이고 그 통치 원리는 기존의 힘의 법칙이 아닌 역전의 법칙, 무기력의 법칙이 통치하는 영역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약한 신학인 것이다.

3. 약한 신학(weak theology)

3.1. 하나님 이름에 관한 새로운 관점

카푸토는 신은 최고의 존재도 존재 자체도 아니며, 존재적이거나 존재론적인 것도 아니며, 존재의 원인이나 근거도 아니라고 보며 기존 신학의 입장에서 자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경우는 이는 손실이 아니라 득이라는 것이다. 약함은 오히려 축복이다. 존재의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줄 때, 사건은 해방되는 것이다.⁹³⁾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플러그를 뽑음으로써 신의 실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전원을 끊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을, 그 존재가 증명되거나 의심되는, 최고의 실체나 (존재와 존재자 사이를 오가는 존재신학적 회로에 하나님을 깊이 머무르게 하는) 존재 자체의 지평이나 근원으로도 접근하지 않는다. ... 나는 존재론적 질서에서 신이라는 이름의 플러그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실체가 있는나 없느냐 하는 논란의 전원을 끊고자 한다. ... 실체론적 이슈에 대해서 나는 최종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⁹⁴⁾

카푸토는 하나님 이름의 존재적, 존재론적 연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 심지어 확대를 겪게 된다고 본다. 이름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사물의 이름으로 봉사하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지만 이름은 여전히 현실(reality)에 대한 어떤 참조점을 갖는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름은, 현실로 간주되는 것 너머에 약속된 현실의, 어떤 “초현실성(hyperreality)”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약한 신학(weak theology)은 신학적 실재론이나 반실재론의 형태가 아니라 사건의 초-현실주의(hyper-realism of the event)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를 원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손아귀에서 이리저리 동요한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이름의 존재적, 존재론적 연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 심지어 확대를 겪게 된다. 이는 심지어 이상한 종류의 포스트모던적 성모 마리아 송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포스트모던한 방법을 제공한다. 나는 약함을 축복으로 여기는 팔복을 따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그 모든 결정 불가능성과 도발성 속에서 요동치게 함으로써, 존재의 노예상태에서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사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9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

9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0.

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현실(reality)에 대한 어떤 참조점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현실로 간주되는 것 너머에 약속된 현실의) 어떤 “초현실성(hyperreality)”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게 한다. 따라서 약한 신학은 신학적 실재론이나 반실재론의 형태가 아니라 사건의 초-현실주의(hyper-realism of the event)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에서 그 열정과 실존적 강렬함은 결정 불가능성으로 확대해서 보이게 된다. ... 초-현실성(hyper-reality)은, 수용불가능하고, 수축불가능하며, 해체불가능한 사건의 열린 결말 속에서, 현실을 넘어 아직-현실이-아닌 것, 눈으로도 귀로도 아직 보거나 듣지 못한 것에 이르게 된다.⁹⁵⁾

카푸토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라기보다는 사건의 이름이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부름의 이름이고, 현존이라기보다는 도발이나 약속의 이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강한 신학에서 약한 신학으로 신학적 입장을 선회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단적 가설을 고백한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라기보다는 사건의 이름이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부름의 이름이고, 현존(presence)이라기 보다 도발(provocation)이나 약속(promise)의 이름이다. 두 번째로, 이것은 첫째로부터 이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명백한 강함보다는 약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는 강함의 위상(register)에서 약함의 위상으로, 신적 권능과 전능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약함의) 얇은 신학(thin theology)으로, 존재의 소음에서 침묵과 무조건적 부름으로 이동한다.⁹⁶⁾

카푸토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응답하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이름의 사건의 도발에 응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이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부르거나 명명한 식별 가능한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부르는 어떤 것이다.⁹⁷⁾

카푸토는 신을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보는 기존 신학의 입장을 자제할 것을 권하며, 신의 이름도 존재의 질서에서 풀어주고 자 제안한다. 그렇지만 이름은 여전히 현실에 대한 어떤 참조점을 가진다. 이름은 실체가 아니라 현실 너머의 초현실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사건, 부름, 도발이나 약속의 이름이다. 우리가

9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1.

9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2.

9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0.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응답하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보다는 그 이름의 사건에 응답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3.2. 하나님 이름의 무조건인 요구

카푸토는, 정통신학의 전능한 신(Deus omnipotens)의 이미지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약함(weakness of God, 고전 1:18)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전능한 신의 관념에서는 악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을 때, 거기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적 이유가 있다고 말하곤 한다. 카푸토는 하나님의 약함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1)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2) 속죄 신학을 비판하고 있다.

전능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념(idea)은 ‘무로부터 창조’ 관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성서에는 없으나 2세기에 그리스도교인들과 플라톤주의자/영지주의자 간에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레니우스(Irenaeus)의 이단반박에서 처음 등장하여,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니케아 신조에서 재확인된다. 그러나 2세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물에 불확정성의 관념(notion)이 있었다.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특정한 어떤 방향이 주어지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창세기 텍스트에 의하면, 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토후와보후(tohu-wa-bohu, 모양없는 공허), 테움(tehom, 깊은 물 속의 형체), 루아흐(ruach, 기운)가 었치락뒤치락하며 이미 있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시작이 없었다. 무로부터 창조(creation ex nihilo) 이념은 2세기의 산물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이레니우스(Irenaeus)의 이단 반박(against Heresies)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며 아타나시우스(Athanasius)가 니케아 신조에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레니우스와 테오�필루스(Theophilus)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진정한 남성인간(he-man)이기에 창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지전능하고 마초적인 제작자이어야 하기에, 조금은 여성스러워 보이는 자궁 같은 물이 깊은 테움은 신학의 기록에서 지워질 운명이었다. 그래서 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즉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고 충만한 권능을 가지셨지만, 존재론의 전능한 신(Deus omnipotens)이 아니라 더 제한적이고 겸손한 수단의 하나님이었다. 신학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⁹⁸⁾

9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Cross*

안셀무스(Anselm of Canterbury)로 대표되는 형벌적 속죄 신학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댓가로 속죄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이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환경제적 사고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이 희생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중심 이념이 아니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 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몸으로 단번에 새 삶, 은총의 삶으로 고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중심 개념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본 무조건적인 용서, 선물(gift)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안셀무스로 대표되는 형벌적 속죄 신학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갚지 못하는 지불금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댓가로 받고 인간의 죄를 탕감하게 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이러한 논리는 그리스도교의 천재적 숨씨가 아닌, 라고 꼬집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이 희생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중심 이념(idea)이 아니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 (죄, 자기애, 욕정으로 죽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몸으로 단번에 새 삶, 은총의 삶으로 고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빛을 탕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선물(gift), 은총이며 바울 서신의 중심 개념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법정 화폐(the coin of the realm)는 고통이 아닌 용서이며, 모든 것이 용서이지 고통이 아니며, 모든 것이 교환이 아닌 선물(gift)로 발휘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은 아이콘의 표식(mark)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세상적 예상을 부정하며 교환경제의 우상에 혼란을 가져온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 죄인은, 예수가 로마의 사형 집행인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받는다.⁹⁹⁾

희생적 교환이 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칙, 아바(Abba)의 법칙은 선물(gift)과 은총과 같은 아이콘(icons)에 의해 주어진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눅 23:34).” 그것은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남직한 사건과 같이 들린다. 그것은 신성한 광기, 신성한 무정부(sacred anarchy) 상태의 역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

and Khôra: Decon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20-21.

9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22-23.

유적 초과와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광기의 경제학, 무정부 상태의 경제학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학대는 사랑으로 되돌려 받고, 공격은 용서로 해결된다. 교환 경제의 엄격한 회계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선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다. 외부자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가 아혼아홉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없는 힘이다.¹⁰⁰⁾

예수의 죽음은, 형이상학적 신학이나 그리스도교의 권위와는 달리, 하나님의 힘의 한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힘으로 사고함의 한계를 시사한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약함”(weakness of God, 고전 1:25)의 상징(emblem)이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등골이 오싹한 모습은 그리스도교의 중심 이미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안내 상(figure)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처에 피를 흘리는 예수의 몸은, 그리스의 형이상학이나 주류 철학에서 보는 아테네인의 아름다운 몸에 비하면 스캔들이고 장애물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고전적인 힘의 하나님은, 데리다가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로부터 빌려온 “없어”(sans)라는 이상한 논리에 따라, 힘없는 힘의 하나님 형상(form)으로 대체되어 말소된다.¹⁰¹⁾

상처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아이콘은 무효와 무의미로 나락에 떨어진 것이며, 이러한 무정부적 하나님은 신플라톤적 초존재(hyperousia)의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른 “없는 것들”(me onta)의 지상의 왕국의 아랫목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초월은 여기저기 줄로 자국이 남겨진 초월, 초월없는 초월로 납득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은 존재-신론적(onto-theo-logically) 혹은 존재-신정치적(onto-theo-politically), 초존재론적(hyper-ousiologically)으로 이해되어서는[받아들여서는,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카푸토는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 부동의 동자, 전능한 존재론적 힘이 아니라 세상의 기저를 이루는 자선[선행, 은혜](beneficence)으로 생각한다. 그는 세상을 효과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인이 아니라 자선으로 생각한다.¹⁰²⁾

십자가가 (모든 인간적인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아이콘(icon)이라면 그 십자

10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24-25.

10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25-26.

102)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26-27.

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힘없음, 기껏해야 힘없는 힘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용서의 힘이다. 하나님의 표식(mark)은 우리 사이의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요구(claim)를 하는 어떤 것의 이름이며, 반면에서 거기에는 통치력이 부재하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무조건적 요구(claim)가 우리에게 과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는 초월적 힘이 아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형이상학적 우상이 된 신앙의 아이콘(icon)이다.¹⁰³⁾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전 1:25). 카푸토는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응답할 때는 강한 힘이 된다고 본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흔히 말하는 인간의 나약함은 탐욕,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함의 신학에서 우리는 정의를 부르는 약한 힘, 또는 사랑을 부르는 약한 힘의 뒤를 쫓는다[흔적 등을 더듬어 찾아낸다]. 이 약함은 강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응답의 강함, 용기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 본회퍼(Bonhoeffer) 자신이 악에 직면해서 보여주었던 그 강함으로 해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나약함은 탐욕, 나르시시즘, 권력욕, 어둠의 심장, 마음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인간 마음의 비일관성, 우주 과정의 비일관성과 우연성,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 사건의 "혼돈적" 특성, 유기적 생명의 과정 상의 취약성을 보면, 내가 『급진적 해석학(Radical Hermeneutics)』에서 "현사실적 삶의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상을 볼 수 있다.¹⁰⁴⁾

약한 힘, 특히 하나님의 약한 힘을 뜻하는 실용적 예는 용서이다. 용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 요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약한 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보복과 같은 강하고 확고한 힘을 거절한다. 물리적 힘으로는 약한 힘이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요구이며 힘없는 힘이다. 카푸토가 희망하며 제시하는 것은, 용서, 환대와 같은 일종의 구조 현상학이다.

사랑에서 조건이 붙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랑은 충실성의 행위(act of fidelity)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이 전적으로

10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27-28.

104) John D. Caputo,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321.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것은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는 문제이다. 이 무조건성은 종교성의 심장이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충실할지를 묻는다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신하게 된다면 특정 종교적 전통의 고백적 종교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구조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아주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는 사회적이 아니라 종교적 언어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요구는 힘없는 힘이지만 예수는 전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약한 힘이 어떻게 강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준다.

3.3. 약속과 희망의 약한 힘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요구(claim)에 자신의 삶과 피를 내어준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식화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icon)이지 우상이 아니다.¹⁰⁵⁾ 우상숭배는 조건적인 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것으로 취급될 때, 교회가 형상이기를 그치고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¹⁰⁶⁾

십자가는 이전의 전통적인 신 이해를 뒤흔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의 전통적인 종교의 구조,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십자가는 뒤흔든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기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한다(고전 1:23). 카푸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해체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푸토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보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신의 의지에 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한 신의 약함의 힘은 부정과 폭력과 억울한 고난에 대항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고린도 전서 1:27-29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신은 이 '세상의 약한 것들'과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ta me onta)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신은 저 높은 곳에 있는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초월적 존재로 생각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며 움직이게 하고 기도하며 희망하게 하는 부름(the call)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카푸토는 생각한다.¹⁰⁷⁾ 카푸토는 이와같이 십자가의 신학을 제안한다고 말한다.¹⁰⁸⁾

105)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34-37.

106)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44.

사건 신학(theology of event)의 기본 음향은 주술적 마법에 반대되는 호출, 전능한 힘의 개입에 반대되는 무기력(powerlessness)이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역사를 통해 우리를 끌어들이는 미끼, 매력의 힘, 도발, 불러냄, 심연의 약속을 신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약속의 힘이다. 데리다의 경우, 약속의 사건, “도래할 것”의 부름이 신의 이름으로 새겨지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데리다는 이 이름의 도움 없이 무엇으로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주스나 선물과 같이, 끝없이 다른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장차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데리다에게 있어 약속은, 태곳적 과거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현재를 넘어 미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기본적 유혹의 사건들을 담고 있는 단어로, 과거와 공명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 불가능자의 가능성으로 불안정한 단어로, 언어 그 자체에 머무르게 된다.¹⁰⁹⁾

엘로힘이 피조물에 대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세상이 좋다는 선포이면서 좋은 결과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다. 그것은, 창조에서 가장 오래되고 토착적인 단어로, 선이 실재화되고 현실화되며 성육신되는 메시아 시대의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부름은 일들을 세상으로 불러내고 약속으로 우리를 앞으로 불러낸다. 그리고 엘로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고서 말한다, 이것은 좋다, 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¹¹⁰⁾ 하나님은 영감을 주는 영이며 부드러운 숨결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신학의 가장 고전적인 언어에서 하나님은 영감을 주는 영이며,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이끌며, 그의 부드러운 숨결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어올려 영을 높이고 새롭게 한다. 주(Lord)는 루아흐 엘로힘, 엘로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바람은 그가 깊은 곳 위에서 숨을 쉬는 바로 그 영이다.¹¹¹⁾

하나님의 이름은, 원인결과의 헬레니즘적 모델보다는 부르심의 히브리적 모델, 인과정보다는 언약, 영원한 존재보다는 말씀에 대한 불변의 충성, 태초의 주동자(主動者)라기보다는 최초의 약속, 만일 동자(動者)라면 효율적 원인의 강한 힘보다는

107)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209.

10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41.

10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3.

11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3.

11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3-94.

동기를 불어넣는 부름이나 도발, 약속에 의해 움직이는 동자라는 용어로 사고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희망이다. 용서는 과거의 의미를 바꾸지만 과거라는 존재는 거부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를 더럽힌 인종청소, 즉 아우슈비츠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한 힘이기 때문이다. 희귀병에 걸린 순진한 아이의 비통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힘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약한 힘이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왕이라면 왜 그의 군대가 그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다.¹¹²⁾

사건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혹은 아래에서이다.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처음이자 유일한 증언(testimony)인 응답이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맞춤과 같은 약한 힘이다.¹¹³⁾

십자가 사건에서 주술적 힘이나 전능한 힘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없음이 드러난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한 신의 약함에서 세상의 부정과 폭력과 억울한 고난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를 흔들며 깨우며 기도하며 희망하게 하는 부름을 보게 된다. 힘없는 약한 하나님이지만 약속과 희망의 하나님이다.

3.4. 하나님 이름의 상징성

한편, 카푸토는 『종교에 대하여(on religion)(제2판, 2019)』에서 하나님 이름을 존재론적 실체가 아닌 상징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철학자나 과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 인상적인 말, 노래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수행성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하는 상징이다.

나는, 이해력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을 하나님 이름이 대신한다고 말한다. 헤겔이 형상화(figuration, Vorstellung)라고 부르는 것, 틸리히가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내가 신시학이라고 부르는 것

112)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4.

11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7.

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스포츠가 삶의 은유라는 말을 듣는다. 나는 종교가 삶에 대한 은유, 깊은 상징적 발발(outbreak)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폴 틸리히(Tillich)가 말했듯이 만일 당신이 상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은 단지 상징이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¹¹⁴⁾

카푸토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요구 측면에서 사고하고 재기술하고 자 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비즈니스이다. 불확실한 삶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자 하는 자는 열정적이며, 하나님 이름은 이러한 열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카푸토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 방식을 전환하고 자 한다. 즉 그는 힘(force)과 권세(power)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요구(unconditional claim) 측면으로 하나님을 사고하고 재기술하고 자 한다. 데리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끌어냈다. 카푸토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질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종교적 담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의 관심이나 열정을 그려낼 수 있는 수단(vehicle)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은 위험한 비즈니스이며 사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깊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인생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키르케고르가 말한 열정, 데리다가 호명했던 무지의 열정이다. 이것이 진정하게 실존적인 참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이름은, 이러한 열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런데 카푸토는 하나님 이름 없이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¹¹⁵⁾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바라는 바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114) John D. Caputo, *On Religion*, 2nd ed.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2019), 97.

115) Ian Leask,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333.

3.5. 하나님의 유령성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동일성과 차이』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신론(onto-theology)의 역사로 규정한다. 이는 서구 형이상학이 모든 존재의 근거를 최고 존재로서의 신에게 둔 것에 기인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으로써 존재-신론으로서의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비판하면서 하이데거는 여전히 기존의 형이상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¹¹⁶⁾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존재론(ontology)이 아닌 유령론(hauntology)을 제안하였다. 유령 개념은 실체, 존재자 중심의 전통적인 존재 개념을 넘어서, 어떤 효과로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며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을 지칭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존재 개념으로 사유될 수 없었던, 즉 존재자 이전의 존재,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기 이전의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그것은 존재자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 부정조차도 불가능한 무엇이다. 그것은 부정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되돌아오는^{re-venant} 유령^{revenant}과도 같다. 의식이 아무리 무의식을 부정하려 해도 의식 한 가운데 무의식이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기에 익명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¹¹⁷⁾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의 집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존재를 이동, 변이, 변형, 역전시키는 사건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의 희망, 욕망으로서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이름이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의 이름이다. 이때 하나님은 존재나 존재자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준존재(quasi-being)이다.

강한 신학에서 신은 우주의 지배자이지만, 신의 약한 힘은 존재의 숨겨진 간극(interstic) 아래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이후에서 보여주려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존재가 제자리에 고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무정부적 방해와 같이 존재를 안에서부터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질서(an ordo non ordinans)와 같이, 존재의 모호한 틈새(crevice)에 암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의 불안한 마음에서 일어나, 존재의 집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존재를 이동, 변이, 변형, 역전시키는 사건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새로운 어떤 것이 저 아래로부터 길어 올려질 때까지, 존재가

116) 손기태, 『불가능성의 정치신학』 (서울: 그린비출판사, 2022), 221.

117) 손기태, 『불가능성의 정치신학』, 222-223.

사모와 탄식으로 신음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의 희망, 욕망으로서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이름이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의 열망이고, 영감이고, 통기(通氣)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나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준존재(quasi-being)이며, 매우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다.¹¹⁸⁾

카푸토는 하나님의 유령성(specterality)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름 아래에 진행되는 것은 하나의 유령적 효과라고 한다. 유령은, 존재자와 무(無) 사이에서 흔들거리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완전히 존재하지는 않으며, 존재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부존재는 아니다. 카푸토는 유령론(유령담론)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름 아래에 진행되는 것을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유령성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걷어치우거나 수수께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이것이 게임이라면 내가 계속 지게 되는 게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사로잡힌 어떤 것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유령성은, 때론 무신론자로 통하는 사람들이 때론 겁먹게 되는데, 모더니티가 축출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불러내어 대화에 참여한다. 내가 만일 옳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유령론(유령담론)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름 아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¹¹⁹⁾

카푸토는, 급진적 해석학 입장에서 이러한 유령들을 깊은 곳(the deep)으로부터의 전령들(messengers)로 간주한다. 즉 그것들은, 개념적 사고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전이나 후에, 사고가 혼란스러울 때, 그에 대한 적절한 개념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접촉들을 말한다.¹²⁰⁾

카푸토는 하나님을 존재나 존재자로 보지 않기에, 준존재를 도입하려한다. 그는 기존의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을 찾는다. 유령(specter)이란 말을 통해 존재자 이전의 존재,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기 이전의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유령성을 도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저 아래로부터 길어 올려질 때까지 존재가 사모와 탄식으로 신음하는 사건을 드러

11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9.

119) John D. Caputo, *Specters of Go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2), 3.

120) John D. Caputo, *Specters of God*, 4.

낼 수 있다. 하나님 이름은 고정적인 존재에 대한 명명이 아니라 사건을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표현하는 궁여지책인 것이다.

3.6. 하나님의 초월성

강한 신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명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은, 존재 너머의 선, 존재에게는 충분할 수 없는 선이라는 플라톤의 탁월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계시며, 여기서 “없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약한 신학에서는 충분할 정도로 훌륭하지 않다. 초월적인 초본질적 초존재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명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존재 아래의 은밀한 영역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를 낮추는 부름, 호출의 그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초월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초월은 부수는 주먹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고 영감을 주며 부드러운 숨결로 우리를 재촉하는 영의 초월이다.¹²¹⁾

카푸토에게서 초월은 이른바 ‘시간적 초월’(temporal transcendence)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초월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시간을 초월하기’(transcending of time)가 아니라 ‘초월하면서 시간 내 있음’(in time as transcending)이다. 그 한 예는 레비나스와 더불어 ‘타인을 향한 윤리적 초월’이다. 카푸토에게 윤리는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리는 어디로 가기 위한 열차표가 아니다. 윤리는 자체가 온통 초월이다. 윤리적 초월은 자기-사랑의 탐욕을 넘어 스스로를 입증한다. 이런 타인애로의 초월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기-초월이다. 윤리적 초월은 알고보니 공간 안에서의 초월이 아닌 시간 내의 초월이며 그러나 시간의 초월이 아닌 “시간 안의”(as time) 초월이다.¹²²⁾

카푸토는 하나님을 존재론적 초월이 아니라 부름, 자비(beneficence)에 대한 무조건적 요구,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일어나도록 요청하는 부름으로 생각한다. 카푸토

12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8.

122) John D. Caputo, “Temporal Transcendence,” *Transcendence and Beyond: A Postmodern Inquiry*. ed. John D. Caputo and Michael J. Scanl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188-189. (재인용: 안택윤, “부정 신학적 신적 초월의 포스트모던적 이해에 대한 비교 연구: 데리다, 카푸토의 해체론과 마리옹의 탈형이상학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81(2015. 9. 30), 159.)

가 보기에 하나님은 존재도 아니며, 존재를 넘어서는 초존재도 아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실체를 지식, 의지, 행함, 권세, 존재 측면에서 능가하는 초존재(super-being), 초실체(super-entity)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주에 대한 전능한 존재신-우주론적 동력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자비에 대한 무조건적 요구로 생각한다. 그리고 무정한 세상의 심장으로, 존재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일어나도록 요청하는 부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나는, 원인이 아닌 부름으로, 결과가 아닌 듣는 자로 다루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며, 대의가 아닌 부름으로 주권이 아닌 자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¹²³⁾

하나님 이름은 존재하는 것을 불안정하게 부추기며 애걸복걸하는 간청의 사건, 해체의 사건, 짜릿한 사건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가장 고무된 순간을 부추기는 유령의 약한 힘과 같은 것이다.

나는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것은 존재와 힘의 질서에 속한다.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을 불안하게 하고 줄라대는 부름,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 일정한 도발과 애걸복걸을 가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간청(solicitation)을 의미한다. 그것은 해체의 사건, 짜릿한 사건의 소동, 나쁜 양심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가볍게 숨을 쉬면서 가장 고무된 순간을 부추기는 유령의 약한 힘, 용매를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음을 기꺼이 용인한다. 나는 하나님 이름을 절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한다.¹²⁴⁾

하나님의 약한 힘은, 우리를 부르고 불러일으키는 호출(summon), 고무하고 초청하는 호소,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는 약속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을 강제하는 주권이 없는 무조건적 호소를 품고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취지(import)로, 무조건적인 욕망의 특성(stuff)으로 존재 없이 존재한다.¹²⁵⁾

하나님을 인과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기존 존재신학적 “신정론” 프로젝트는, 그것이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든 인간의 재난에 관한 것이든, 적잖이 세속적(profane)이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진정으로 종교적인 방식은, 약간은 이단적인 가설로 무정부적 개념을 거룩하게 유지하는데, 무기력의 힘이란 용어에 있다. 이는

12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9.

12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9-40.

12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8.

내가 하나님의 약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묘사한 의미이며, 레비나스가 궁핍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요구한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인과성, 권세, 명성 없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부르는 부르심이다. 결국 나는 십자가의 신학을 제안할 뿐이다. 그것이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것이다.¹²⁶⁾

하나님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존재를 넘어서는 초존재도 아니다. 카푸토가 말하는 하나님은 약한 힘으로 우리를 부르고 간청하는 사건에 더 가깝다. 그는 하나님을 존재도 초존재도 아닌 유령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초월성은 존재 아래의 은밀한 영역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를 부르며 영감을 주고 부드러운 숨결로 재촉하는 영의 초월이다.

3.7. 소결론

카푸토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사건의 이름이요, 현존이라기 보다는 우리를 향한 도발이요 약속의 이름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재나 존재 너머의 초존재로 보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고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전통적인 하나님 이름이라는 플러그를 뽑음으로써 신의 실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고자 한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등골이 오싹한 모습은 그리스도교의 중심 이미지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식화했다. 이렇게 상처로 피를 흘리는 하나님 이미지에서는 하나님 힘의 한계, 하나님을 힘으로 사고함의 한계를 보게 된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약함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약한 힘이지만 우리에게 용서, 선물, 환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요구를 한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위해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는 속삭이듯이 약하지만 우리가 응답할 때 강한 힘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간청하고 있다. 이는 사건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을 실체가 아닌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의 이름으로 보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해석학을

12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40-41.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신학이다.

카푸토는 데리다의 유령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유령성을 제시한다. 그는 존재 개념, 자기 동일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준존재로서 유령을 들고 나온다. 유령은 끊임없이 출몰하기에 존재자 이전의 존재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나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며 유령과 같은 준존재이며 매우 거룩한 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가 제자리에 고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희망으로서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며 존재를 넘어서는 초존재도 아니다. 카푸토는 존재론적 초월에는 관심이 없다. 자비에 대한 무조건적 요구, 자신을 넘어서 일어나도록 요청하는 부름 자체를 사건으로 본다면,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초월성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를 부르고 깨우며 약속하는 부드러움 숨결의 영의 초월이다.

4. 하나님 나라

케네스 E. 베일리(Kenneth E. Bailey)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를 해석하면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한다. 첫 번째 말(“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은 이미 존재하는 행복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미래라고 그는 강조한다. 레이먼드 브라운(Raymond Brown)¹²⁷⁾에 의하면,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아시르와 그리스어 makarios는 “기원의 일부도 아니고 복을 간주하는 말도 아니며, 오히려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수는 가난한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며 이미 그들이 소유한 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개인과 사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통치와 관련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이미 현존한다고 선언하였다.¹²⁸⁾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4:17, 막1:15)”에서 하나님 나라를 원어에 가깝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야기 마가복음』의 저자들은, 흔히 사용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고정된 개념을 피하고 자 한다. 그들은 마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청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한다. 둘째는 청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요구하는 것들과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일도록 안내한다. 셋째로 청중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도록 안내한다.¹²⁹⁾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카푸토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신약성서에서 발견한다. 고린도전서 1:27-29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신의 약함’에서 가난한 자, 소수자, 국외자 등 사회적 아웃사

127) Raymond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553.

128) 케네스 E. 베일리,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박규태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09-112

129) 데이비드 로즈, 조안나 듀이, 도널드 미키, 『이야기 마가복음』, 양재훈 옮김 (경기도: 이레서원, 2022), 318-325.

이더들이 주인이 되고 다스림이 없는 나라를 그린다. 그는 지배의 왕국이 아니라 통치 없는 왕국, 약함과 어리석음의 규칙이라는 규칙만 있는 왕국을 말한다. 이 왕국은 기존의 종교라는 구조가 없는 종교, 즉 종교 없는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이는 해체주의적 접근이다. 해체는 종교나 왕국을 전부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구조서의 종교를 흔들고 불안정화하려는 것이다. 해체는, 정의가 지배하는 힘없는 주권의 나라라는 요청으로, 권력자들의 힘의 왕국을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만들게 하는 것이다.

카푸토는 일종의 해체-행동(deconstruction-in-action)을 펼치는데, 이는 강한/세속적인 왕국(strong/worldly kingdom) 대 신적인/약한 왕국(divine/weak kingdom)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전략적 반전”이다. 이 계층적 이원론에서 예전에는 저하된 용어(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선 순위가 높게 된다. 즉 바보와 어린이들의 장소인 신성한 통치/영역/토포스/코라(divine reign/domain/topos/khora)가 권력과 부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 왕국을 앞지른다. 이러한 역전은 반대파를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들며, 폭력적인 구성인 위계를 해체한다. 두 번째 움직임은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왕국에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주권 등을 새롭게 생각하고 제정하는 방식이다.¹³⁰⁾

4.1.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제안

카푸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 하늘과 땅의 창조자, 전능, 대단한 권세라는 관념(idea)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장적 하나님의 통치가 신권적 공포를 가져왔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주적 질서를 흐트러트리려고 세상 질서를 전복하는 하나님을 가정해 보자고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향식 도식이나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관념을 내던져 보자. ... 신이 우주에 대한 주권적 지배자로 간주되지 않고 정의의 혼돈적인 목적(chaosmic ends)을 위해 우주를 전복시키고 질서를 비질서화하고 세상을 비세상화하는 무엇으로 가정해 보자.¹³¹⁾

130) Mark Manolopoulos, “Caputo in a Nutshell: Two Very Introductory (and Slightly Critical) Lectures,” 26-27.

13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3-34.

카푸토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향식 도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소외된 자, 주변인, 외부인, 벌거벗은 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할 것을 제안한다. 신이 현 시대 안정의 중심이 아니라 혁명 시대의 전복적인 구석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한다. 신은 현재의 구조를 지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며, 고통 받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있을 것이다.

가장 무력한 남은 자, 주변부에 머무르는 사람들, 작은 자, 가축우리 같은 집의 이미지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앞장 서 보자. ... (기존의) 종교와 신학의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사건을 막고 망각하게 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기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 신이 신학적 존재론적 주권의 기반이 되는 견고한 토대라고 생각되지 않고, 색다른 이들, 주변인, 외부인, 소외된 이들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벌거벗은 자들과 함께 하고 성소 안에 있는 긴 옷을 입지 말고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궁핍한 자, 약탈을 당하고 밑바닥에 깔린 자(암 8:4)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신이 현 시대 안정의 중심이 아니라 혁명 시대의 전복적인 구석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¹³²⁾

카푸토는 계속해서 신의 이름으로 정박된 사건을 풀어줄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 이름 안에 감춰진 사건이, 권력과 임재(presence)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세상이 경멸하는 모든 것에 자리매김을 한다고 말해 보자.”고 한다.¹³³⁾

카푸토는 하나님이 존재의 질서를 당황하게 하고 헛갈리게 하며 부정하는 사건을 대표한다고 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건은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눕게 하기 위해, 정의가 통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하나님 나라는 강한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강한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을 약한 신학의 이름으로 연필로 가위표 하듯이 지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대의의 경제, 권력과 특권의 걸쭉질, 존재의 질서를 당황하게 하고, 헛갈리게 하며, 부정하고, 꿰뚫게 생각하는 사건을 대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건은, 우리를 무지막지한 이리떼에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눕게 하기 위해, 제도와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개방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며 정의가 통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신학을 뒤따르는 국제정치가 주권이 없는 국가들의 공동체라 가정해 보자.

132)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3-34.

13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3.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연의 전선을 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 이름을 지우고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사건을 방면함이라고 가정하자. ... 이러한 일은 종교와 강한 신학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이름에 숨겨진 사건을 구하는 것이라 가정하자. 여기서 강한 신학이란 이상, 새겨진 이미지, 제도적 권력의 정교한 도구, 도덕적 침울, 하향식 권위주의, 고백적/자기정체적 분열을 말한다.

하나님 이름을 연필로 가위표 하는 것처럼 지워보자.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신학의 이름으로 말이다. 여기서 약한 신학은, 굵히고, 상처 입고, 굽주림과 박해로 훼손되고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몸처럼, 표준 신학 문서를 훼손하는 낙서로 구성된 것이다. 약한 신학을, 몰트만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처럼, 베이고 멍들고 피를 흘리는 하나님에 대한 명상으로서 상상해 보자.¹³⁴⁾

카푸토는 하나님을 부동의 동자, 인과성의 존재-원인적(onto-causal)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문한다. 존재에서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자들 아래에서, 존재-존재론적 차이 밑에서 냉혹한 세계의 심장으로서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끌어내어 우리를 부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관대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살라고 요구한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무조건적인 것은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준존재(demi-being)(유령, 성스러운 것, 무(無)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¹³⁵⁾

하나님의 나라가 소환(call)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안에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름에 의해 소환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에 갇히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부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는가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왕국이 임하도록 하라는 요청으로) 부르심의 약한 힘에 부름 받고, 부름 아래, 항상 권유받고, 압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요청받는 무엇이다.¹³⁶⁾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이 땅의 주권자로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존재론적 하나님을 상정한 신권적 통치는 폭력적일 때가 많았다.

13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5.

13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6.

13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9.

카푸토는 하나님이 소외된 자, 별거벗은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있음을 보려고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존재나 존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사건으로 준존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 이름으로 소환되는 사건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부르심의 약한 힘, 무조건적 요구에 압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4.2. 정의의 사건이 지배하는 힘없는 주권의 나라

해체(deconstruction)는 언어적으로 명명된 이름이 실상을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며, 명명하여 확립된 것과 무조건적인 요구로서의 사건 간의 필연적인 간극이 있기에, 무조건적인 요구로 기존의 것을 분석, 수정, 폐지, 재작성, 검토하는 것이다. 해체는 조건부 이름과 무조건부 사건 사이의 협상이다. 법과 같은 이름은, 그에 대한 무조건적 요구인 정의와 같은 사건으로 끊임없이 반추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해체는 법을 무너뜨려서 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체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법을 해체한다는 것은 법과 정의 사이의 차이를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법은 유한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정의는 억제할 수 없는 사건, 무한한, 무조건적, 해체할 수 없는 요구를 불러온다. 해체는 조건부 이름과 무조건적 사건 사이에서 수행되는 협상이다. 법을 해체한다는 것은, 법의 구조적인 면을 명백히 유지하면서, 정의의 무조건적 요구(demand)에 비추어 법이 무자비한 분석, 수정, 폐지, 재작성, 사법적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이다.¹³⁷⁾

무언가를 해체한다는 것은 이름에 의해 정박되고 숨겨진 사건을 해체하고 사건이 이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의 해체는, 조건적으로 확립된 법의 이름과 무조건적 요구(demand)로서 해체불가능한 정의의 사건 사이의,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간극에 의해 가능해진다. 해체는 법이 사건의 이름으로 폐쇄되는 것에 대해 저항한다. 즉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하는 가난한 개인”(poor existing individual)의 특이성(singularity)을, 법이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¹³⁸⁾

“실존하는 가난한 개인”의 특이성과 법의 보편성 사이의 간극에 스스로 자리잡는 해체는, 해체가 정의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정의를 낳는다. 실제로 데리

13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7.

13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8.

다의 가장 놀라운 공식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해체는 정의이다.”¹³⁹⁾ 해체가 정의라고 말할 때, 해체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검을 가져온다!¹⁴⁰⁾

우리는 정의의 사건이 지배하는 구조를 상상할 수 있다. 정의의 사건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소환, 부름, 요구나 호소의 규칙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권위는 정의, 선물, 용서, 환대와 같이 끝없이 번역 가능한 일련의 이름 아래에 있는 해체불가능한 사건에 의해 발휘되는 무조건적 권위이다. 이는 무기력의 권세, 약한 힘의 권세이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사건이 지배하는 힘없는 주권의 나라이다.

정의의 사건이 지배한다는 것은, 정의가 발행하는 일종의 무조건적 소환(summon)의 규칙(rule),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부름(call)의 규칙, 정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주장(claim)이나 호소(appeal)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하는 요구(demand)의 규칙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란 약속과 매혹(lure) 뿐만 아니라 소환, 부름, 요구, 주장, 호소를 의미하는데, 그 구조는 데리다가 “힘 없는 주권”(sovereignty without force)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타난다. 데리다가 말하는 것은, 정의, 선물, 용서, 환대와 같이 끝없이 번역 가능한 일련의 이름 아래에 있는 해체불가능한 사건에 의해 발휘되는 무조건적 권위이다. 이는 힘이나 세속적인 권세, 군대나 물질적 수단이 없다. … 무기력(powerlessness)의 권세(power), 약한 힘의 권세는 무조건적 요구(claim)에 의해 발휘되는 권세 없는 힘이다.¹⁴¹⁾

하나님 나라는, 강하지 않고 약한 힘에 의해, 힘없는 자들의 힘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는 예외적이고 특이한 사람들, 색다른 사람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 이민자, 데리다가 말한 부랑자들(rouges)에 대한 지속적인 감수성에 의해 조직된다. 이 왕국은, 법의 규칙(rule)이 아니라, 은혜의 사례(gratuity), 선물/기회/뜻밖의 것의 자비로움, 데리다가 말한 사건에 의해 다스려진다.¹⁴²⁾

선지자는 정의를 대변하는 자, 정의를 큰소리로 요구하는 자, 정의를 무시함을 경고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는 존재의 질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사건의 질서에 속한다. 그는 임재(presence)가 아니라 도발에 속한다. 정의의 왕국은, 법과 현재 질서에서 누

13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8.

140)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2.

141)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8-29.

142)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29-30.

리는 특권 때문에 나를 부르고 비난한다. ... 선지자는 말썽꾸러기로 당대의 정의를 대변하기에 보통은 끝내 살해된다. 이는 유대 선지자와 그리스 선지자의 다른 점이다. 여로보암과 같은 모든 왕에게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양심을 찌른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는, 고난을 주고 목숨을 앗아가는 왕이 있다.

선지자는 사건의 담당자이다.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경고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상태와 정의의 사건 간의 간극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현세의 권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현세의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파한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³⁾

성서적으로 정의를 대변하는 자는 선지자다. 그는 존재의 질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사건의 질서에, 임재가 아니라 도발에 속한다. 그는 현재의 상태와 정의의 사건 간의 간극을 감지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사람이다.

4.3. 역전과 전위[轉位]의 신성한 무정부

하나님 나라는 해체의 열쇠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상이나 체계나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과 변위의 무질서한 장” 또는 “신성한 무정부[난장판](sacred anarchy)”의 비전이다. 그것은 현존이나 구성으로서가 아니라, 약속과 부름으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소란이나 성스러운 혼란을 가리키는 것이지, 최고 실체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idea)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해진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이름 안에 움직이는 약한 힘을 내러티브 형태로 펼쳐 보이며 미친 이야기로 당혹스런 비유를 할 때야 비로소 약한 힘을 보게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 하신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 아래 일어나는 사건은 역전과 전위[轉位]의 무질서한 장이다. 따라서 나의 무정부적 제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란이나 성스러운 혼란의 이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 어디에서나 질서를 가져오는 최고 실체를 찾아 통치자로 지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내가 “신성한 무정부(sacred anarchy)”라 부르는 것이다.¹⁴⁴⁾

14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30-31.

144)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4.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법칙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힘은 기존 질서에 충격을 주어 불안정하게 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기력(powerlessness)이 그 힘을 발휘하여, 가장 높고 강한 자가 가장 작은 자로 대치될 때마다 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 나라는 도발하고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연약함은 숭고한 연약함으로 신성한 힘이다. 예수가 부른 왕국은 세상 힘을 조롱하는 왕국이며, 광기가 지배하는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힘은, 존재하는 세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통치 질서에 불안정한 충격을 전달한다. 왕국은 선함으로 존재에 야기된 혼란의 구체화이다. ... 나는 존재의 모든 방해물 지적하고 싶다. 이 모든 무질서의 중심에 무질서한 이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지성적 존재가 설게 했음에 틀림없다고 묻기보다는 사랑스런 무언가가 사랑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이 “다스리는” 영역이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순전한 힘을 조롱하는 아이러니이다. 그 나라는 믿음의 능력이나 행동할 용기가 없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도발하고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연약함이다. 그것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신성한 힘이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숭고한 연약함이며 신성한 트라우마를 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무기력(powerlessness)이 그 힘을 발휘하여, 가장 높고 강한 자가 가장 작은 자로 대치될 때마다 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법칙을 따른다. 그 법칙에 따라 먼저 된 것이 나중 되고, 밖에 있는 것이 안이 되고, 상실된 것이 구조를 받고, 죽음이 산 자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며, 이 모든 것이 강자의 역학을 교란시킨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을 붙여 놓은 것은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인의 아이러니에는 깊은 진실이 있다. 예수가 부른 왕국은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일상적인 일을 조롱하는 왕국이었으며, 신성한 광기가 지배하는 왕국이었다.¹⁴⁵⁾

하나님 나라는 인내와 용서와 같은 약한 힘의 통치로, 여기에서는 위반에 대해 대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고 풀어준다. 힘을 믿는 세상이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치라고 충고할 때 적을 사랑하고, 아흔아홉보다 한 사람을 더 선호할 때, 왕국의 힘없는 힘이 지배하게 된다.¹⁴⁶⁾ 하나님 나라는 초대, 기원, 선포의 시학, 케리그마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는 내러티브로 선포되며, 그 사건의 진리는 부르심에 돌이켜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45)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4-15.

14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5-16.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지만 그 놀라운 변화는 강력한 마법 소생술이나 초자연적 개입의 강한 신학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존재의 질서에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 기원, 선포의 시학, 케리그마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는 내러티브로 선포되는데, 그 진리는 역사 기록의 정확성, 일치성, 적절성이라는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진리의 의미는 진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진리는 실행, 육체 속으로 행하고 번역하는 어떤 것이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부르심에 의해 변화되고, 돌이켜지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약성서의 내러티브는, 그 진리가 상호 일치의 진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참이지 덜 참이 아니다. 진리는 존재와의 상호 일치가 아니라 존재의 성취를 넘어서는 비유담[우화] 같은 강화이다.¹⁴⁷⁾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 불가능의 가능성, 존재 이외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power)는 힘없는 권세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삶이 절망적일 때 희망을 유지하게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아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오고 있는 어떤 것의 가능성, 패러다임적으로 종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불가능의 가능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눅 1:37).¹⁴⁸⁾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같은 약한 힘의 장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잘 다루며, 약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의의 힘은 농담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며 시간은 돈이며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다. 세상은 범죄를 벌하지만, 왕국은 용서한다. 무기력(powerlessness)의 힘이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진정한 용서와 환대가 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은, 전지전능-신학(omnipotence-theology)의 하나님처럼 만물을 압도하는 권세가 아니라, 무기력의 권세에 의한 것이다. 왕국은 용서와 같은 약한 힘의 장으로, 힘과 힘을 교환하여 보복의 순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성한 무정부의 반대는 신약성서가 “세상(world)”이라고 부르는 불경스런 질서이다. 그 세력은 사건을 막기 위해 공모한다. 세상의 신성 모독은 권세의 일상사이다. 여기서 강자가 약자를 잘 다루며, 약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의의 힘은 농담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며 시간은 돈이며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다. 세상은 범죄를 벌하지만, 왕국은 용서한다. 세상은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왕국은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기를 바란다. 세상은 낯선 사람을 막거나 서

147)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5-16.

14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6.

류를 제출하게 하지만, 왕국은 환대를 제공하고 결혼 잔치에 초대한다.¹⁴⁹⁾

카푸토는 하나님 나라를 실체가 아니라 비전으로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를 역전과 변위의 무정부의 비전으로 볼 경우, 이는 역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환대와 같은 약한 힘이 통치 원리가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외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역전의 법칙이며, 이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함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은 그러한 사건을 지칭하는 이름인 것을 알게 된다.

4.4. 소결론

하나님을 창조자, 피조세계의 주권자로 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여겨왔다면, 우주적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세상 질서를 전복하는 하나님이 통치아닌 통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고 강한 자가 가장 낮고 작은 자로 대치되는 나라, 진정한 용서와 환대가 있는 무기력의 힘이 작동하는 나라, 적을 사랑하고 아흔아홉보다 한 사람을 선호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약함’을 상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색다른 이들, 주변인, 외부인,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 별거벗은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있다. 약한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전의 법칙이 통하는 나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부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준존재로서 약한 힘이다.

카푸토는 ‘신의 약함’에 천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자, 국외자 등 사회적 아웃사이더가 주인이 되는 나라로 그린다. 이는 실체가 아니라, 역전과 변위의 무정부의 비전이다. 진정한 용서와 환대와 같은 약한 힘이 통치 원리가 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사건이 지배하는 힘없는 주권의 나라다. 그것은 현존이나 구성으로서가 아니라 약속과 부름으로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적 소환, 부름, 요구나 호소의 규칙이 작동하는 나라로 상정할 경우, 그것은 실체라기보

149)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16-17.

다는 비전,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끊임없이 기존 질서를 흔들어놓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부 요구[사건]가 조건부 질서[이름]를 재편하게 한다. 무조건부 사건과 조건부 이름 사이의 이와 같은 협상을 해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세상 질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사건으로 끊임없이 반추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해체의 열쇠이다.

5. 결론

존 D. 카푸토는 급진적, 포스트모던적, 해체적 신학의 대표자이다. 그는 객관적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사고, 형이상학에 근거한 전통 신학을 강한 사고로 비판하며, 이러한 구조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화적 모델로 해석학적 접근을 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에서 해체주의적 엄밀성을 견지하는데 이를 급진적 해석학(radical hermeneutics)이라고 명명한다.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말했듯이 ‘메타 내러티브’에 회의적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진리 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포스트형이상학적이고 포스트모던한 철학의 일환인 급진적 해석학인 것이다. 급진적 해석학은 맥락적, 근원적, 상황적, 유한한 관점이라는 해석학적 상황에서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확립하려는 것이다. 급진적 해석학에서는 모든 것은 해석이다.

급진적 신학은 급진적 해석학에 의해 이해된 하나의 형태(form)이다. 급진적 신학은 고백적 신학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는 급진적 해석학의 하나의 양상(樣相)이다. 이 급진적 신학을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에서는 사건의 신학(theology of the event)이라 부르고 있다. 이 사건의 신학은 급진적 해석학의 실증 사례(instance)이다

카푸토는 신학자이기 이전에 철학자로서 하이데거, 데리다 등 현대 대륙철학의 주제들을 자신의 신학적 작업에 풍부하게 적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접근방법이다. 그는 급진적 해석학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데 회의적이며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해석이라고 본다.

카푸토는 본격적인 신학 저서인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의 모두에서 이름과 사건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신학을 표명한다. 카푸토의 신학적 접근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한 관심,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신학이 하나님의 이름의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은 그 이름에 동요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학이라는 것이다. 카푸토는 신학이 고정된 이름에 묶여 있어서 왜곡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분해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신학은 하나님 이름으로 감춰진 사건에서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온다.

이상과 같은 접근 방법으로 그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존재

론적 최고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 카푸토 자신도 그러한 강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해석학적 전개를 위해서 존재 신론을 빗금치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상정한다. 이는 서구형이상학의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기존의 존재 개념으로 사유할 수 없었던 존재자 이전의 존재,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기 이전의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하나님은 존재자가 아니기에 존재 부정조차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부정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유령^{specter}과도 같다.

이때 하나님 이름은, 원인결과의 헬레니즘적 모델이 아니라 부르심의 히브리적 모델로, 강한 힘보다 동기를 불어넣는 부름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무엇의 이름이다. 그 하나님은 지상의 자연 재해나 인간에 의한 재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약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약한 힘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강한 힘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 실체라기 보다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고 위치가 뒤바뀌는 비전이다. 소외되고 주변인이었던 아웃사이더가 주인이 되고, 약한 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 약한 힘은 존재하는 세력을 혼란스럽게 하는 역설적 효과를 발휘한다.

카푸토의 사건의 신학, “약한 신학”은 전적 타자로 하나님은 누구/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의 사건으로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하나님 이름의 사건을 통해서 기존 믿음 및 종교 체제를 항상 분석, 평가하고 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카푸토는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으로 미국종교아카데미(AAR: American Academy of Religion)로부터 2007년 Book Award를 받았다. 종교분야에서 구성주의적 반성적 연구로 탁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Peter Goodwin Heltzel은 리뷰에서 “40년 동안 영미 대륙철학의 종교철학에 활력을 불어넣은 카푸토는 구성주의 신학의 책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 이 책은 많은 흥미로운 토론을 촉발할 것이다”라고 했다.¹⁵⁰⁾

그러나 신에 대한 구성주의적 교의, 하나님을 약한 힘으로 보는 견해는, 포스트

150) Štefan Štofaník. *The Adventure of Weak Theology - Reading the Work of John D. Caputo Through Biographies and Events*, 175.

모더니즘을 극렬히 반대하는 근본주의자나 신복음주의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다. 약함의 모습만으로 신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할까? 인간의 유한성으로 신앙인들은 의존 감정을 갖고자 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의 창조주로서 강한 신의 모습과 신약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약한 신의 모습을 어떻게 연속성 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케빈 하트(Kevin Hart)¹⁵¹⁾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주요 모티브는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이며, 그리스도교가 직면했고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주요한 난제는 이들을 어떻게 관련시키느냐이다. 카푸토의 책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이 거의 없으며, 하나님, 즉 신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카푸토의 해체주의는 기존 신학적 이론을 불안정하게 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신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론, 특히 성령론과 교회론에 대해서도 해체적 시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카푸토는 강한 신학 대 약한 신학이라는 이분법에서 약한 신학을 강조한다. 이는 약한 신학으로 강한 신학을 해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해체가 해체불가능한 것, 정의와 같은 불가능자로 해체가 가능한 기존의 체제를 다시 세우는 사건이라면, 약한 신학 제시가 곧 해체 사건이다. 약한 신학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나 목표가 아니라, 강한 신학과 끊임없이 협상하는 파트너이다. 예를 들면 카푸토의 하나님 나라는 신성한 무정부 상태, 힘없는 주권의 나라인데, 이는 종교 없는 종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종교 없는 종교는 제도와 같은 출발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으며, 그 자체로는 지향성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실체라기 보다는 비전이다. 하나님 나라 제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역사적 세상 간의 협상을 이끄는 해체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불완전한 균형보다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인 입지를 더 선호한다. 카푸토도 이점을 의식해서인지 강한 신학과 약한 신학의 양자택일이라는 입장에서 약한 신학만을 강조하는 편이다. 해체주의에 충실하려

151) Kevin Hart, "The Kingdom and the Trinity,"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End of Metaphysics*, ed. Jeffrey Bloechl, Indiana Ser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153. (Štefan Štofanič. *The Adventure of Weak Theology - Reading the Work of John D. Caputo Through Biographies and Even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18), 194에서 재인용)

면, 약한 신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약한 신학과 강한 신학의 길항작용의 모습을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이름의 사건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왕국의 부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부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러한 정의의 부름, 타자 도움에로의 부름이 어떤 경우에 진정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도 과제일 것이다. 즉 부름의 왜곡과 응답의 왜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는 리처드 커니가 『이방인, 신, 괴물』에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착했던 문제이기도 한다.

카푸토의 약한 신학은 이미 완료되어 고정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카푸토의 신학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의 저작들은 종교와 신학에 대한 진정한 감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진리는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인식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기도는 doing이고 인식은 being인 것이다. 그의 관심은 doing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 사건, 사건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자신은 항상 사건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함: 사건의 신학』의 마지막 장은 “신학, 진리, 사건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며 책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이 난다.

카푸토는 신학을 실천하고 있으며 존재신론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The Insistence of God: A Theology of Perhaps(2013)』, 『Specters of God: An Anatomy of the Apophatic Imagination(2022)』으로 이어지는 출판에서 그는 계속해서 존재론적 신관을 문제 삼고 있다. 유명 담론을 제시하며, 존재자와 무(無) 사이에서 흔들리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완전히 존재하지는 않으며, 존재보다 더 근원적인 사태로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는 탈형이상학적 사유, 특히 해체적 급진 해석학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미래적으로, 부름으로, 불가능으로, 유명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1차 참고 문헌

- 카푸토, 존 D. 『종교에 대하여』. 최생열 옮김. 동문선, 2003. (Caputo, John D. *On Religion*. 1st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카푸토, 존 D. 『포스트모던 해석학』. 이윤일 옮김. 도서출판b, 2020. (Caputo, John D. *Hermeneutics: Fact and Interpretations in the Age of Information*. UK: A Pelican Books, 2018.)
- Caputo, John D. *On Religion*. 2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 Caputo John D. *Truth: The Search for Wisdom in the Postmodern Age*. Great Britain: Penguin Books, 2016.
- Caputo, John D.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2. 2차 참고 문헌

- 데리다, 자크.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서울: 민음사, 2010.
- 로일, 니콜러스.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오문석 옮김. 서울: 엘피, 2007.
- 울슨, 로저.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의석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2021.
- 제닝스, 테드 W. 『데리다를 읽는다 / 바울을 읽는다 : 정의에 대해서』. 박성훈 옮김. 서울: 그린비, 2014.
- 카푸토, 존 D. 『How to Read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 Caputo, John D.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97.

- Caputo John D. *Specters of God: An Anatomy of the Apophatic Imagi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2.
- Caputo, John D.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The Good News of
Postmodernism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Caputo, John D. "The Insistence and Existence of God: A Response to
DeRoo." *Cross and Khôra: Decons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318–326.
- Caputo, John D. "Spectral Hermeneutics: On the Weakness of God and the
Theology of the Event." *After the Death of God*. John D Caputo and
Gianni Vattimo. ed. Jeffrey W. Robbi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47–88.
- Caputo, John D. "The Weakness of God and the Iconic Logic of the Cross."
*Cross and Khôra: Decon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15–36.
- Crockett, Clayton. "From Sacred Anarchy to Political Theology: An Interview
with John D. Caputo." *The Essential Caputo: Slected Writings*. ed. B.
Keith Put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8, 18–43.
- Derrida, Jacques. "Peformative Powerlessness: A Response to Simon
Critchley." *Constellations* 7. no. 4. (2000), 466–468.
- Derrida, Jacques and Ferraris, Maurizio. *A Taste for the Secret*. trans.
Giacomo Donis.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2.
- Heidegger, Martin. *Duns Scotus's Doctrine of Categories and Meaning*.
translated by Joydeep Bagchee, Jeffrey D. G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2.
- Leask, Ian. ed. "From Radical Hermeneutics to the Weakness of God: John D.
Caputo in Dialogue with Mark Dooley." *Cross and Khôra:
Decon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 Marko Zlomislíć and Neal DeRoo.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327-348.
- Manolopoulos, Mark. "Caputo in a Nutshell: Two Very Introductory (and Slightly Critical) Lectures." *Postmodern Openings Journal*. Volume IV. Issue 2. 2013 June, 21-43.
- Putt, B. Keith. ed. *The Essential Caputo*. Bloomington: Indiana Univeristy Press, 2018.
- Robbins, Jeffrey W. ed. *After the Death of God: John D. Caputo and Gianni Vattim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Štofanić, Štefan. *The Adventure of Weak Theology: Reading the Work of John D. Caputo through Biographies and Even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8.
- Zlomislíć, Marko and DeRoo, Neal. ed. *Cross and Khôra: Decon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0.

3. 기타 참고 문헌

- 로즈 데이비드, 듀이 조안나, 미키 도널드. 『이야기 마가복음』. 양재훈 옮김. 이레서원, 2022.
- 리오타르 장-프랑수아.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옮김, 서광사, 1992
- 베일리, 케네스 E.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박규태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손기태. 『불가능성의 정치신학』. 서울: 그린비출판사, 2022.
- 안택윤. "부정 신학적 신적 초월의 포스트모던적 이해에 대한 비교 연구: 데리다, 카푸토의 해체론과 마리옹의 탈형이상학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81(2015. 9. 30), 139-172.
-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복음과 실천』 54(2014년 가을), 193-220.

이은주. “사건과 해체: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 『신학논단』
68(2012), 147-168.

커니, 리처드.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임헌
규 외 옮김. 서울: 한울엠플러스, 1992.

A Study on John D. Caputo's Weak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Since the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neo-orthodox theology and neo-liberal theology have appeared in line with or in opposition to the rationalism of modernity, but the gap between life and religion seems to be widening for modern people. In postmodern theology, postliberals and deconstructionists are making new plans. John D. Caputo's "weak theology," a representative of radical, postmodern, and deconstructive theology, is respected to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people living in a postmodern society who distrust grand discourses and pay attention to d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John D. Caputo's theological approach, the weakness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focused on his full-fledged theological work,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and some works.

He criticizes traditional theology based on metaphysics and ontological theology pursuing universal truth as strong theology, and reveals God's weakness by deconstruct God's name by the event. This is the theology of events as part of radical hermeneutics. The name of God does not designate a substance, but the name of an event; rather than a presence, it is the name of a call to us and a promise. With the motif of God's weakness he suggests that the kingdom of God is not a substantial kingdom, but a sacred anarchy of reversal and displacement in which social outsiders such as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become the hosts. It is impossible, but it can be said to be a vision that disrupts and reorganizes the world order.

The theology of events, "weak theology," opened the way for a new perspective and reinterpretation of who/what God is and what God's calling is. Caputo's project, which regards God as a calling rather than an ontological entity, as a specter that neither exists nor non-exists, tells us that the existing Christian tradition must be newly analyzed, assessed, and completely reconstructed.

Keywords: radical hermeneutics, theology of event, deconstruction, name, event, strong theology, weak theology, kingdom of God, sacred anarchy, specter.